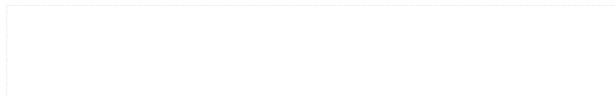


2017 사)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방향

- 일시 : 2017년 11월 11일(토) 9:30~16:30
- 장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
- 후원 : 양서원 · 공동체 · 교문사 · 창지사



본 교재는 양서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의 끝자락에, 문득 찾아온 가을을 마주했나 싶더니... 어느새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해야한다는 부담으로 공연히 분주한 일상일 수 있겠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기쁜 생활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1일 한국육아지원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발명과 혁신이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신념까지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속화 되는 세계적 변화에 의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재조명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교육의 의미를 규명하고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아주대 석좌교수님이신 박형주 교수님의 『인공지능 시대와 지식전수형교육의 종말』이란 기조강연을 기반으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최명희교수님이 교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교사 성장의 무한공간, 학습공동체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이선혜선생님께서 교사교육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화여대 박은혜 교수님의 종합토론은 특히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정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확실한 방향 제시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학회는 2015년 12월부터 사단 법인화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용역인 ‘찾아가는 유아흡연예방교실’사업을 2년 째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로 이번 학회에서도 우수박사논문(계획서)에 대한 연구비 지급과 개인발표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쁜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미래의 유아교육을 선도하는 앞선 인식과 방향 모색, 더 나아가 실현을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심성경 올림

# 학술대회 일정표

- 9:30~9:50 등록  
오전 사회: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9:50~10:00 개회사  
심성경(한국육아지원학회,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0:00~11:20 기조강연 - 인공지능 시대와 지식전수형교육의 종말  
박형주(이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
- 11:20~11:30 휴식
- 11:30~12:20 주제강연 I -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천  
최명희(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 12:20~12:30 흡연사업 보고
- 12:30~13:40 점심  
오후 사회: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3:40~14:40 Scholar Session & 포스터 발표  
1분과(503호), 2분과(504호), 3분과(505호)

## ■ Scholar Session

시간	1 분과 (60주년기념관 503호) 사회: 신상인 (전 신우유치원 원장)	2 분과 (60주년기념관 504호) 사회: 최대훈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분과 (60주년기념관 505호) 사회: 이영미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40 ~ 14:10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인적성검사도구 타당화연구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정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4:10 ~ 14:40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전우용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및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  박윤미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 제3차 3~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4:40~15:00 이동 및 휴식/ 총회
- 15:00~15:50 주제강연 II - 교사 성장의 무한공간, 학습공동체 이야기  
이선혜(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 15:50~16:10 종합토론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6:10~16:3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 목 차

기조강연	인공지능시대와 지식전수형교육의 종말..... 11 박형주(이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
주제강연 I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천..... 17 최명희(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주제강연 II	교사 성장의 무한공간, 학습공동체 이야기 ..... 55 이선혜(경기 교육청 장학사)
>>> Scholar Session ( I )	
	•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인적성검사도구 타당화연구..... 83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 93 전우용(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Scholar Session ( II )	
	•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105 김혜전(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및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 115 박윤미(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Scholar Session ( III )	
	•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23 김은정(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 제3차-3~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133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Ⅲ 포스터 발표 Ⅲ

1.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의 만 5세반 유아 교사 되어가기 .....	141
정미애(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	144
이삼숙(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3. 공립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 .....	148
이지혜(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4.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	152
우지연(인천가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 전화기를 건네고 싶은 민서: 만 1,2세 영아간 공동 주의 연구 .....	154
곽경숙(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6. 그림책의 그림읽기 수업을 통한 시각 문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	158
김지영(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7.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61
박정화(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8. 교사가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와 개선 방안 .....	164
이혜영(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석사)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167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현조(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변길진(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최규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170
이현지(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음악교육 실제 .....	173
유다이(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박정은(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2. 숲유치원 아이들의 자유놀이 양상과 의미 .....	176
이영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한미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	180
남경희(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14.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개발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183
최미숙(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최우영(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5. 어린이집 근무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관계 .....	187
김정화(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6.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지식과 효능감과의 관계 .....	190
변길희(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운미(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193
■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198
■ 제 7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00
■ 연수 이수증	202

기조강연

# 인공지능시대와 지식전수형교육의 종말

박 형 주

(아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



## 인공지능시대와 지식전수형교육의 종말

박형주 (아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

### I. 변화의 시대가 교육에 갖는 함의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근대화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동인으로 흔히 교육열을 든다.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 리더십을 갖춘 소수의 인재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갖추어 조직을 키워낸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남이 그린 큰 그림 속에서 퍼즐의 한 조각처럼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자기 몫을 해낸다. 우리 교육은 이런 인재를 길러내며 그 시대에 필요했던 교육의 기능을 잘 수행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20세기 후반부를 강타한 디지털 혁명은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에 머물렀지만, 어느새 로봇이나 사물인터넷과 결합하며 실물세계로 들어왔다. 실체가 오리무중이던 인공지능은 무인자동차나 스마트 공장처럼 만질 수 있는 모습이 됐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짜장면이 집 식탁에 놓이지 않는가. 가상세계와 실물세계의 이런 결합은, 인공지능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그 모양과 추세가 거대해져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린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너무 들떠 보여서일까? ‘실체 없는 수사’라거나 ‘지나쳐 버릴 과장(hype)’이라는 견해도 있다.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의 범주를 넘어 체계를 갖춘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중이다. 지나친 호들갑스러움을 넘어서 진지한 논의로 들어가는 증거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로봇이든 사물인터넷이든, 따로 놓고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상세계와 실물세계의 연결이라는 거대 변화가 경이적인 생산성 증대를 일으킬 것은 닥친 현실이다. 일자리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시장, 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보아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를 포함한 노동의 상당량을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이 수행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요구하는 인재의 소양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리더의 소양으로 여겨지던 전략적 마인드와 기획능력이 이제는 한참 내려와서 말단 직원에게도 필요한 소양이 됐다. 말단조차도 자신의 전략적 기획을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 구현하는 중간 부서장의 모습을 띠게 됐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단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생각의 힘’을 갖춘 작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 I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기계가 사람의 뇌를 흉내 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인공지능 연구는 수학자 앨런 튜링(1912~1954)을 시작으로 본다. 기계가 지능이 있다고 보는 기준을 고심하던 튜링이 그 테스트로 창안한 것이 모방게임 즉 이미테이션 게임이다.

90년대만 해도 인공지능에 비관적인 견해가 상당했다. 장밋빛 약속을 너무 일찍 남발하여 연구비 투자는 많이 받았으나 보여준 것은 별로 없다는 혹평도 있었고, 과학 기술의 사기행각이며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심한 비판까지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의 문턱을 넘은 지금은 엉뚱하게도 데이터 회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삶에 곧 영향을 미칠 태세다.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재서 병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기존 환자데이터를 참고해서 자동으로 처방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다.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실험하고 있는 무인자동차가 수 년 내에 도로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각종 센서를 달아서 취합한 데이터로 주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탄생시켜서 유럽 바둑 챔피언을 꺾어버리고 천재 기사 이세돌에 도전장을 내미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당시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쌓기에는 저장 공간과 같은 하드웨어적 한계가 너무 커 보였을 것이다. 쌓여있는 데이터에서 현재 닦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무지막지한 규모의 데이터의 바다에서 그렇게도 빨리 검색해내는 방법이 출현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멕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세계의 휴대폰을 통해 처리된 데이터량은 인

류가 이전 2천년동안 생산해낸 데이터의 총량만큼 된다고 한다. 사물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그야말로 무한 데이터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 방대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생성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남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적이라지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보조자나 협조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역할을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창의적인 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저 출산과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다보스 보고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데이터분석가와 전문 세일즈 직원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복잡한 상품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전문 세일즈직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자질, 그리고 이를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미래 인재의 소양이 될 수밖에 없다.

### III. 지식전수형 교육의 종말

지식전수형 교육은 학생들을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만 기능하게 하고, 예측을 넘는 나비효과와 영역에서는 무장 해제시킨다. 영화 '마션'에서는 화성에 고립된 주인공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과 식량을 조달하고 지구와 통신할 방법을 찾는 과정이 묘사된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은 이런 창의성과 생존 능력을 키운다. 핸드폰으로 웬만한 지식은 얻어낼 수 있고 데이터만 충분하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시대에 지식 전수형 교육의 종말은 분명하다. 학교에서 선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도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면 족하다. 검색을 잘하는 것과는 달라서, 지식의 상호연계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초등학생의 반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한다. 직업의 탄생 소멸이 빈번해지는 시대에 자신의 부서나 담당 업무가 내일 없어질 수 있으니, 새 업무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지식 전수기관'이 아니라 '학습능력 전수기관'이어야 한다.

인간 노동 상당량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시대에, 기초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다다르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합리적 추정과 궤변을 구별 못 한다. 사실과 소문을 혼동한다. 블랙 스완과 통계적 대세의 차이도 잘 모른다. 창의와 임기응변을 동류로 여긴다.

'생각연습'의 과정이어야 할 수학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로 변질됐다. 이런 기술이 복잡다단한 세상 문제의 해결 능력과 유관한가. 지금의 반복적 문제풀이 방식의 교육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다. 단조로운 교과 내용을 반복하며 '실수 안하기 전문가'가 되어가는 아이들은 미래 직장에서 평생 처음 보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받을 것이다.

서술형 평가를 늘리는 것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교과 과정의 묻지 마 감축은 생각의 재료를 턱없이 줄이는 것이라서 무책임하다. 이래서는 아이들이 뻥한 생각의 틀을 넘어서 모색과 해결의 통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적은 수의 문제를 긴 시간동안 궁리하며 풀게 해주어야 한다. 아이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을 얻어나가고 생각은 깊어진다. 아이가 미래 일자리에서 부닥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도 닮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야 하는 현 입시의 틀에서, 어떤 학교나 교사도 제자가 손해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평가 시스템의 벽은 강고하다. 우리나라의 유별난 교육열은 이 벽에 강고함을 더하며 당장 필요한 변화를 힘들게 한다. 필요한 변화를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에 담아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천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천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 I. 들어가며

#### 1. 미래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와 직업세계 전반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컫는다(Schwab, 2016). 우리는 멀지않은 미래에 개인의 삶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세세하게 계획되고 통제될 것이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아마도 20년 내에 로봇 개인비서로부터 날씨, 일정,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일정을 보고 받고, 사물 인터넷이 장착된 집안의 모든 자동화기기 덕분에 자동적으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외모의 로봇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누워 사색하면서 직장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월요병 없이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개인별 빅데이터에서 생성된 학습프로젝트에 따라 로봇 교사가 제공하는 기본 학습을 받고 더 높은 수준의 인간 교사로부터 정서 상담까지 받게 될 테니 당신은 더 이상 헬리콥터맘으로 살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요즘 IBM이 개발한 왓슨(Watson)이 암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왓슨은 1,5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과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암환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미국 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상당수 환자는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따를 만큼 신뢰를 얻고 있다(연합뉴스, 2017.

10. 6일자) 그러나 흥분도 잠시 몇 가지의 걱정이 뒤따른다. 만약 전자적인 오류로 인하여 왓슨이 오진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파괴할 것인가? 왓슨을 제안한 사람의사의 잘못인가? IBM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선두에 있던 과학자가 돈이나 명예 때문에 경쟁국가에서 일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 걸까? 마치 태풍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전반의 급변을 가져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양상과 특징, 내용도 예측불가하고 막연하지만 지금과는 상이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발전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서 더 나아가 관계 즉 네트워크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기술 획득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후발국가라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하는 내용과 방법, 관계가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국가가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변화를 넘어서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인력확보와 제반 환경 마련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 실업대책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각 분야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김윤경, 2017).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710만개 일자리가 소멸되고 210만개가 생성될 것이며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우려와 맞물려 세계경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준비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서 한국은 25개 비교국가 중 가장 준비가 부실한 국가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이선영, 2017).

따라서 우리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무엇이 급선무인가? 단기적인 생산성을 높여야하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하는가? 그 대답은 명료하다. 우리는 현재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이며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어린 학습자들에게 어떤 생존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 그 중에서도 영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견해보고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때이다. 특히 생애 초기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서 있는 ‘생애 처음 만나는 사람 선생님’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실천해야하지를 숙고할 때가 되었다.

본론에서는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현황과 문제인식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인재유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환경변화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미래 영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미래교육환경을 반영하는 요소를 찾아보고 현행 교육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교사역할에 대해 소견을 엮어보고자 한다.

## II.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현황과 문제인식

### 1. 우리의 교육은 어디쯤에서 길을 잃었는가

우리나라 현행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화된 교육절차 내에서 일방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일류대학에 진입하는 소수의 성공을 위해 다수의 학생에게 실패와 좌절을 감당케 한다. 모든 학습자가 같은 내용과 같은 수준의 지식을 주입식으로 습득하고 박제된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받기위해 유아기와 아동, 청소년기 전체를 희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주관 국제학업성취도에서 수년간 선두의 성적을 내지만 경쟁을 통한 1등, 불행한 1등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도 여전히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이 과연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6년 발표한 제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대상인 OECD 22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유아기부터 일류대학을 꿈꾸며 수년을 앞당겨 선행학습을 하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의 노예가 되어 앞으로 인생에서 짊어지게 될 어떤 짐보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헤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

산체제를 위해 고안되었던 한국의 대량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안중배, 2017).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성공해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친다. 행복해야 비로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라는 괴물>에서 권재원(2014)은 교육이란 무엇보다 교육받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그 행복은 유보된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순간 주어져야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학습의 공간이라야 한다. 소수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 학생의 행복을 위한 ‘복지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종욱, 2017).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면 그 기본 방향이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저마다 학습에 대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위기감을 갖는 것은 현재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기능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고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분야는 무엇이며 그 기능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인간의 특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인간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인간본연의 가치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고양하는 것이다(구본권, 2015; 이선영, 2017).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상담사나 교사와 같은 직업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봇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람만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다루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계는 패턴화, 알고리즘에 강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성이 깃든 몸짓과 손짓, 눈짓 등의 감성, 상황에 따라 섬세함이 요구되는 직업은 당분간 인간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이용순, 2017).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가치를 발달시키는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방식에 있었다는 분석도 간과할 수 없다(류태호, 2016).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조만간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교실환경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될 것이다. 간단히 버튼만 누르면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눈앞에 펼쳐져 실제 우주여행을 하거나 바닷속 여행을 하듯이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무려번역 서비스와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및 무료공개강좌(OER: Open Education Resources)를 이용해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세계 석학이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용화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학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별화된 진단 및 처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교실에서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학습용 로봇이 등장해 로봇과 기본개념을 공부하고 인간교사와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전개될 수도 있다(류태호, 2016).



출처: [mrsbarnettfirstgrade.blogspot.com](http://mrsbarnettfirstgrade.blogspot.com) / [youtube.com](https://www.youtube.com)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활용하는 미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실

이선영(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교실 밖의 학습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 학습 환경으로 변화하여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교사중심 강의식 수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학습공간과 내용에 제한받지 않는 학습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교육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진보된 기술이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인지적 역량과 흥미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 양방향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실 안과 밖의 학습이 결합되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으로 학습자들은 웹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개별적인 학습을 하고나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온라인 학습과 학교 안에서의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형태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다. 플립드 러닝은 디지털 매체를 가정에서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게 하고 교실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형태이다(Bergmann & Sams, 2014). 플립드 러닝 수업의 학습자 중심 수업설계로 인해 학습자들은 호기심과 흥미가 증가하고, 수업 태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어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손은주, 2017). 셋째, 교실 안에서의 학습은 프로젝트학습과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다른 학습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학습방법이다. 학습자는 자신과 인지적 역량 수준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학습자와의 사회학습을 경험하면서 비계를 통한 잠재적인 학업능력을 발현한다(Vygotsky, 1980; 이선영, 2017에서 재인용). 즉, 미래교육의 교육환경은 학습자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위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무한히 열린 공간에서 상호정보교환과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교육내용은 단순한 지식을 서술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의 발생과 과정,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절차적 지식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시대의 특징이 융합과 초유기체이듯이 교육의 모든 활동도 분절적이지 않고 초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성태제, 2017) 개별적인 교과가 분리되어 학습되기보다는 융합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 분야의 학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총체적인 역량을 증진키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수년간 매우 성공적인 교육방식으로 평가받는다(Bazlet & Sickle, 2017). 1950~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지식중심교육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이라면 1980~2020년대의 역량중심교육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지금의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해 나갈 미래사회는 인간성,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갖추어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왜 고기를 잡아야하는지, 잡은 고기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 스

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주형근, 김선태, 2017). 불확실한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과 감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개척해나가는 능력과 의미를 찾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환류 하는 인류애를 학습내용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3. 미래사회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

미래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진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진보할 것인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역량을 발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이 규정한 미래 인재유형은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복합 문제를 해결하되 타인과 공감하고 협업하며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즉,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균형적으로 갖춘 인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융합적 인재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 시대의 성공요인이다. 10가지 역량은 다음과 같다.

#### ○ 복합 문제 해결 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복잡한 현실 세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미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를 암기하여 짧은 시간에 많이 마주는 능력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당당한 시각과 시도로 풀면서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능력

#### ○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나 문제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

#### ○ 창의력(Creativity)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능력

- 인적 자원 관리 능력(People Management)  
특정업무에 잘 맞는 사람을 변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의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
- 협업 능력(Coordinating with Others)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개인의 성취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 공동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
- 감성능력(Emotional Intelligence)  
상대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는 능력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기호와 성향, 요구와 구매 패턴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품이나 기술을 감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감성능력 필요
-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별 구성원 각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복합 생태계를 구성하는 능력
- 서비스 지향성(Service Orientation)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에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능력
- 협상 능력(Negotiation)  
협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이익에 차이를 보이는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차이를 줄여가는 능력  
개인, 기업, 기관,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협상을 통해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다양성을 열어줘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능력

이선영(2017)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과 인성자질을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자기조절능력, 메타인지, 협동과 사회정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의 미래’, ‘100세 인생’의 저자인 린다 그래턴 교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하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인적 네트워크 넓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태제(2017)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인간상은 목적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상호협력하는 탐구적 자율인으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지적 특성으로 기초 인지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지적호기심, 탐구정신, 인문적 소양,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의사소통력을 제시하였다. 정의적 특성으로는 정서와 성실, 정의와 평등, 이해와 배려, 은근과 끈기, 용서와 화해를 제시하였다.

이경민(2017)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의 핵심역량을 추출하였다. 첫째, 질적 삶을 향유할 줄 아는 긍정인성이다. 삶을 향유하는 능력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현재에 초점을 둔 활동을 통해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이 개입된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과 관점에 대한 것이다. 지속적 학습력, 융복합적 창의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역량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추구된다고 보았다. 셋째, 긍정적인 사회 관계능력에 관한 것이다. 관계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협력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장영재(2017)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과학혁명의 시대에 데이터를 주도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소양으로 이해력, 인문학적 소양, 유연성, 윤리의식, 통찰력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13)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다섯 가지 즉,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지금의 영유아가 20년 후 청년기, 30년 후 성인기를 살아갈 미래사회는 현재보다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질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전념하고 있는 지식우량아가 더 이상 미래사회의 인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교육이 표준화, 통일성, 대량생산이 중요했던 반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교육은 소통능력, 협력, 학습기술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완전히 다르게 전환하여야 한다(Trilling & Fadel, 2009). 문제인식과 창의성을 폭넓게 포괄하는 유연한 인지적 역량과 더불어 다

른 분야와 소통하며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과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다.

### III. 미래 영유아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 1. 미래 교육환경에서 필요한 영유아 교사의 핵심역량

미래 교육환경에서 필요한 인재유형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사 자신도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도록 정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킴과 함께 영유아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어주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비유하는 말이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한 것이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에서 연유된 사자성어이다. 교사로 인해 학생이 성장하고 또한 학생으로 인해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명시 외에 일반적인 교사의 역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선영(2017)은 미래의 교사들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습 상황에서 능숙하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효능감을 높이고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래 교사의 핵심역량은 ①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강화, ② 교수 창의성 신장, ③ 교과 영역 간 융합에 부합하는 협업 능력, ④ 유연한 사고와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는 학생들이 미래적응 학습과 창의력 배양 및 팀워크와 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 가이드, 조력자, 동기 부여자, 카운슬러, 멘토로서의 역할을 담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안중배, 2017).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자격이나 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 외에 교사의 직무나 필수역량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교사에게 있어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는 영유아교육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실천의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영유아교사가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개인적 핵심역량이 증진될 때 영유아에게 최고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영유아기의 교육적 경험은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미래사회의 교육, 사회, 경제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익 창출로 연결된다.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은 유아들에게 질적인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맥락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직하여 실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신은수, 박은혜,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1).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의 개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외국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해 한국 유아교사 핵심역량의 내용과 수준을 도출하여 핵심역량을 7개 영역과 4개의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7개 세부영역은 ① 유아에 대한 이해, ② 평가의 이해 및 실행, ③ 교육과정 운영, ④ 학급운영, 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실천, ⑥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⑦ 건강·영양·안전지도로 구성된다. 박은혜, 김수연, 김희진, 김희태, 박정선, 이대균, 이희경, 조부경, 조형숙, 황해익, 김미석, 김은영(2010)가 정부차원에서 개발한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에서는 유아교사 핵심역량을 6개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6개 영역은 ① 학습자에 대한 이해, ②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③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④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⑤ 정보화 소양으로 구성된다. 오채선(2011)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따른 유아교사가 가져야할 전문적 역량을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철학적으로 사고하기, 소통을 위한 개방적으로 협력하기로 제안하였다.

외국의 경우, 2008년 캘리포니아 대학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2008)에서 전미 여러 지역의 준거를 기반으로 하여 영유아 교사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의하였다. ① 영유아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능력, ② 영유아 관찰과 평가 능력, ③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능력, ④ 건강·영양·안전 관리 능력, ⑤ 전문가로서의 발달과 리더십, ⑥ 운영관리 능력의 여섯 가지이다. Colker(2008)는 영유아교사는 자신의 인성과 삶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할 인성적 요소를 제안하였다. 가르침에 열정, 인내와 헌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실용적인 타협, 융통성,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존중, 창의성, 자기인식, 배움에 대한 열정, 에너지, 유머감각이다.

영유아에 교사의 역량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종합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로 정리해 보면 영유아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직에 대한 열정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영유아가 미래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개별 영유아와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적용 능력,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 영유아에게 인성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 집단에서 협업하고 기여하는 태도,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자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의라고 할 수 있다.

## 2.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비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래사회 교육환경의 예견된 변화 중 몇 가지는 영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이미 강조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2012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창의·인성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전 영역에서 기본생활 습관과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되,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누리과정 전 영역에서 강조하도록 하였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에 있어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국제화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누리과정의 이러한 방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역량으로 제시한 류태호(2017)의 제안과 연관성이 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통합적 교과 운영,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절차적 지식, 창의적 지적능력과 인성에 기반을 둔 사회정서능력과 같이 미래시대 인재 육성에 필요한 요소를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화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교사와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간의 협력적 교육, 학습자 흥미와 자발성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식 교수법의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에서 통합성, 다양성, 생활중심, 놀이중심의 원리, 놀이중심의 자발적 학습, 개인의 흥미 존중, 생활경험 중심의 실천적 지식,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통합적인 교과운영, 개별화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3-5세 누리과정 해설서(교육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와 제 3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보건복지부, 2014)에서 제시하는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 부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지식의 융복합 접근을 위한 통합성

미래사회는 현실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직시하며 융합하고 복합적인 정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에서조차도 다양한 전공간의 수평적 융합뿐 아니라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수직적 융복합으로 혁신을 거듭한다(류태호, 2017).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은 분리된 지식체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융복합과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의 놀이나 활동 속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 ○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각 영역의 내용을 시기와 상황,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편성하며, 5개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서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누리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나눔, 협력 등 바른 인성 지도를 강조하여 비중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 ○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배워나갈 때 분리된 내용영역이나 분절된 교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 경험으로 배운다. 주제중심의 통합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 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5개 영역과의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유아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 활동들은 서로 연관됨으로써 주제에 대해 효과적이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2) 놀이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미래 교육환경은 자기 주도형 학습자에 가치를 둔다. 정해진 틀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보다는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초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놀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경험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므로 놀이는 교육이라는 인간 활동이 원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Bobbitt, 2017). 놀이는 영유아의 삶

자체이면서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학습의 과정이다. 놀이는 숨어있는 잠재력을 분출하게 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유연성을 발달시킨다. 놀이와 생활 경험 중심의 누리과정 교수학습방법은 초연계적인 미래사회 유능성 발달과 잘 연계되어 있는 요소이다.

○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문자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인 학습 방법보다 생활 속에서 사물을 직접 다루는 놀이 활동을 통해 가장 잘 배우므로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보육 활동을 편성한다.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가면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놀이는 유아의 생활이자 학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삶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고 사고를 확장해 간다. 놀이는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아가 정서적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유아가 배워나가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이를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는 발달 특성상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학습한다.

### 3) 개별화 전략의 교육 환경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기본 방향은 모든 학습자가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별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법이 지원되어야한다(정제영, 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개별 영유아의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별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관찰하고 부모와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영유아의 발달과 심리상황을 파악하고, 발현적 상황에서 영유아의 학습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견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 교육환경에서는 집단적 제도교육의 의미가 약화되고 개인별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학습프로젝트, 다양한 형태의 역량중심 교육 등 개별화 교육의 의미가 강화될 것이 예견되는데 이러한 맥락을 누리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유아는 같은 연령이라도 각자 경험의 내용과 범위, 관심사, 학습 능력, 발달 수준, 가정의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사는 유아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활동을 제공하고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활동은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유아는 그 활동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 4)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관계 능력의 함양

미래학자들은 상생의 원리가 21세기 인류를 이끌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사매경용어사전).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지시적인 교수법이나 줄세우기식 학업능력 평가로 획득되지 않는다. 본래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학식과 교양 같은 요소에 더해 협조성과 도덕관이라는 요건을 갖춘 종합적인 것이다(강상중, 2009). 그러므로 개인 간의 교류를 통한 학습, 다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내용에서도 교류를 통한 배움의 공동체, 나아가 공감과 소통을 통한 타인 이해와 인류애를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학습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교사가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이 아니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가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유아들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 5) 창의적 사고능력의 배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 가운데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창의력이다. 아이가 찰흙덩어리로 비행기나 우주선을 만들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술 또는 정보를 만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를 재창조하는 과정이다(류태호, 2017).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기는 창의성의 황금기라고 한다.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각자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타인과 다르게 다양하고 독특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창의적 성향이 합해진 것이다. 이는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토대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의 제 영역에서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한 내용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를 미래교육환경과 개연성 있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여지는 남아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제한과 문제를 탐색해보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를 위한 영유아 교사 역할의 비전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3.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미래교육환경 인식과 실천

교육은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일컬으며 미래 사회에서 유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습득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영유아가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갖춘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교육환경에서 성장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환경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부단히 반성하고 성장해야 한다. 류태호(2017)는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8가지로 답하였다. 학습자 중심수업,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수업의 개인화, 창의적인 수업, 역량기반수업, 토론식 수업, 체험학습, 협업학습을 강조하였다.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전문가인 뉴욕대학교의 얀 플레이스교수는 1950년대 이후 교육혁명을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 구성주의 혁명(Constructive revolution)이 진행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교육혁명은 감성혁명(Emotional revolution)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감성혁명이란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관점을 영유아 교육·보육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서 미래교육환경의 관점을 찾아보았으므로 이 장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유아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것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주제중심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생활주제는 유아의 주변생활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조직하기 위한 개념의 조직체로 현재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생활주제는 통합교육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유아가 자신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즐기고 느끼고 알아가기 위한 경로가 된다(곽항립, 2009).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의 흥미나 계절, 사회적인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들,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제를 정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그래서 연령마다 차이는 있으나 3월은 기관에 적응하기, 4월은 봄, 5월은 가족, 6월은 우리 동네, 7월은 여름과 같이 정해진 공식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로 구현된 생활주제 11개는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 도구’, ‘교통 기관’,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여름·가을·겨울’이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그러나 과연 생활주제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요소를 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인지,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경로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주제와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생활주제가 누리과정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주제 중심의 ‘활동’들이 누리과정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엄은주, 2013; 여혜진, 2015; 이경수, 2013; 최아영, 2013; 최정혜, 2014)에서 5개 영역이 생활주제에 불균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재창, 홍후조, 김기은(2017)은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생활주제는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서로 무관한 별도의 문서이거나 별개의 교육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생활주제를 통한 접근이 교사의 유능성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생활주제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놀이, 교사주도적인 활동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놀이자료와 경험, 활동 등에서 영유아의 학습수준과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은 생활주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활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주제 중심의 통합적인 운영에 대해 많은 문제를 스스로 느낀다. 곽항립(2009)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생활주제 자체가 유아들이 배울만한 내용을 전개해갈 수 있는 것인지, 생활주제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생활주제의 통합적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도 주제를 지겨워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때나 주제에 맞게 제공한 활동이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체감했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분석되었다(정미향, 정광순, 2017). 더군다나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주제가 단지 계획안에서만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생활주제가 영유아에게 가깝고 친근한 대상이라는 것에서 의미 있는 학습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견주어 그것이 시대불변이어야 하는지, 주제라는 제한성 내에서 영유아의 자발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는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인지, 생활주제와 맞으면 학문적 핵심 개념은 무시해도 되는지, 영유아의 발현적 흥미와 학습 욕구는 주제중심 활동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일이다.

Schwab(2016)은 미래 사회에는 다양한 생태계를 통합하고 각 분야의 정통한 지식인, 공공분야, 민간분야를 아울러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원화가 가속될 미래사회에서는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분야의 지식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교수법이 갖는 의미를 재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 누리과정 5개 영역은 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이 깊고, 생활주제는 그 다음 단계인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창, 홍후조, 김기은, 2017).

교사는 주제의 울타리를 낮추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적합성을 뒤로 미루고, 교육과정요소의 핵심개념, 즉 세부내용의 위계와 세부내용 간의 통합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지식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현재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학문적 탐구자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선함을 가진 교사만이 교실에서도 어린 학습자들에게 사전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지 못해도 좋은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다.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 아니어도 된다. 맥가이버, 만능 엔터테이너, 슈퍼맨은 더더욱 아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 사물, 경험에 대해 호감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서로 연관지어 새로운 탐색으로 연결하려는 관용적인 사람이면 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완성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지식의 탐색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가 학습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더 이상 기득권자의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확장해서 새롭게 창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 과정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즐겁게 걸어가도록 감탄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최명희(2016)

## 2) 진정한 놀이 실천에 대한 인식과 실천

놀이는 근본적인 속성은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내적 동기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을 지녔으므로 놀이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력을 발달시켜야 한다(김정운, 2011). 영유아는 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망, 지적인 욕구, 본능적인 호기심을 시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학습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은 이 놀이본능을 발현시켜주는 과정이며 놀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Bobbitt(2017)는 놀이를 하면서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배우므로 교사가 제공하는 경험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놀고, 재미있고 신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에서도 놀이의 가치와 놀이중심 교수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즉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가 진정한 놀이의 속성을 가졌으며 놀이가 주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제시하면서 동시에 놀이경험은 교사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보면 논리적 모순이 있다. 교수 학습방법으로서 놀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놀이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 결정하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놀이가 유아의 성장, 발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사전에 놀이의 목표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공하는 것이 놀이

속성을 반영한 교수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희진(2017)은 주제중심의 교육과정에서의 자유선택활동의 놀이는 교사에 의해 안내된 놀이, 지시된 놀이 등 놀이의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 놀이가 주는 발달적,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놀이계획 및 평가, 놀이 인원수 제한, 생활주제 관련 놀이에 대한 유도, 특정 영역에서의 놀이와 교재교구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생활주제와 관련된 놀이자료와 놀이방법을 제한하여 제공하고 그 환경에서 영유아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놀이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언과 기실(言過其實)에 불과할 것이다. 즐거워할 때 가장 잘 학습한다는 관념 때문에 즐거움을 만들겠다는 지속적인 집착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학습하는 것,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흥미영역이라는 제한된 구조 안에서 영유아의 발현된 흥미를 교육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기 위해 교사는 환경을 흥미를 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ZPD(근접발달영역)에 근거한 발문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는 흥미영역에서 교사가 놀이를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흥미영역에 구체적인 교구, 책, 사진과 같은 추가적인 환경을 구성해주는 과정을 씨딩(seeding)이라고 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리딩(leading)은 유아와 대화하거나 새로운 교과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발전된 개념으로 확장, 연계해주는 역할을 말한다(Schwartz & Copeland, 2013). 피아제는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험을 모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동화와 조절이 놀이 속에서 반복된다고 하였다. 비고스키는 놀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지식을 명료하게 하고 추상적 사고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제 교사는 이러한 이론적 의미를 다시 인식하고 교실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험하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아야 한다. 미하이 칩센트미하이인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절정이 몰입(flow)이라고 하였다.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으로 몰입대상과 하나가 된 듯 일체감을 가지는, 그래서 시간의 물리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몰입이다. 당신도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 때 그런 순간을 만끽하곤 할 것이다. 그것이 독서이건, 게임이건, 운동이건 간에 당신의 뇌가 최대동력으로 작동하고 감정의 흐름은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재미와 의미가 한꺼번에 획득되고 기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serendipity가 일어난다. 아이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이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최명희(2016)

### 3) 개별 학습자의 흥미 존중과 대한 인식과 실천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교육·보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활동을 제공하고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유아가 동시에 같은 것을 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능력, 학습 속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유아가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흥미,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표현능력을 배우게 되고 자기 조절 능력, 주도성, 자율성이 향상된다(조현지, 2013).

흥미란 영유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 탐색할 때 본능적이면서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중요한 원동력이다(Schiefele, 1991). 학습에 있어서 흥미의 의미는 단순히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다. 진정한 흥미는 영유아를 활동에 몰입하게 하고,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선명하게 의식하도록 도우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숙련시킴으로써 정신적 성장을 촉진한다(Dewey, 1901; 권기엽, 2015에서 재인용).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보이는 관심과 흥미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활동의 주제나 내용이 유아의 관심 밖이거나 흥미가 없는 것일 때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교사가 흥미를 학습 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한 영유아의 주체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타율적으로 반응하게 만듦으로써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한다(권기엽, 2015). 이원영(2007)은 영유아교육과정을 다루는 교재들이나 안내서에서는 주로 흥미의 중요성과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흥미의 개념과 교육적 적용에 관해서는 심층적 이해와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많은 심리학자들은 ‘흥미’에 대해 인간의 특성과

정서적인 면을 의미하는 모호하고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흥미’는 본질적인 동기 그 이상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Schiefele, 1991).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장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재미나 호기심을 집단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착각하거나,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흥분을 흥미로 혼동하거나, 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활동에 학급 전체가 동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주의 집중을 흥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가 계획한 활동의 목표와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대상 중에서 두 가지 중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지 갈등한다. 만약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서적 몰입을 이끌어낸 활동이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의도한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자. 반대로 교사가 기술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의도한 학습 내용을 분명하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하자. 이 둘 사이에서 후자 경우에 더 성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영유아의 흥미가 배제된 어떤 경우도 진정한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하루 종일 가르침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생활주제의 교육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놀이와 활동을 운영하다보면 개별 영유아의 흥미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 직전교육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아 영아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유아를 담당할 경험과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박정빈, 김은심, 유선희, 2010), 매번 달라지는 영아의 특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탁정화, 황해익, 2012). 또한 학급 내에 문제행동을 가진 영유아가 있을 경우 그들이 나타내는 공격행동, 거친 언어의 사용, 기본생활 습관의 어려움, 수업 방해 행동,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 교실 이탈, 부주의 행동을 지도하여야 하므로(김주희, 이병인, 조현근, 2016; Dockett & Tagel, 1996) 개별 영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교수법을 실행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게 된다. 또한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종일 근무, 부모나 운영자의 지식중심 교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사는 개별적인 흥미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주도할 미래사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자기만의 역할을 창직(創職)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빅데이터에서 생성된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교육, 산업,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몰입하여 일구어나가야 할 삶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정제영(2017)은 미래교육은 학습자 개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맞춤형 교육이란 차별화, 개인화, 개별화를 포함하며 차츰 각 학생의 교육 목표와 내용이 다르고 교수 방법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개별화로 진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도 반영적으로 고찰해볼 여지가 있는 관점이다.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교사가 아니라 개별 영유아가 보여주는 흥미, 학습의 신호에 가장 높은 관심을 두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듀이의 교육철학에서 중요한 화두는 흥미(interest)이다. 아마 당신도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흥미일 것이다. ‘영유아의 흥미를 이끌어주고,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흥미는 무엇일까.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흥미란 재미있어 하는 기분이나 짧은 순간의 즐거움과는 다르다. 흥미란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대상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집중력이다. 대상에 빠져들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정신의 힘이다. 알고 싶고, 알 것 같고, 알게 되고, 더 깊숙이 알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폭발적인 정신 에너지이다.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이다.

듀이는 이 과정을 정신적인 연결(psychical bridge)이며 일순간의 재미가 아니라 자발적인 학습욕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의 모든 가르침은 학습자의 흥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도 유아의 흥미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며 유지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흥미영역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동시에 아이들이 흥미를 담아야 한다. 아이들이 빠져들고 몰입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흥미를 지속하면서 넓혀갈 수 있도록 영역이 서로 통합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면 더 이상 흥미는 힘을 잃는다. 단지 교사가 강제로 이끌어가는 고된 노력만이 남을 뿐이다.

최명희(2016)

#### 4) 교사-영유아간 상호주도성을 가진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정신적 활동은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자신의 정신적 수준에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와 목표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Bespalov, 2015). 종래의 교육이 과거 지향적 ‘몰아넣기 전략(push approach)’이라면 미래사회의 교육은 미래지향적 ‘잡아당

기기 전략(pull approach)’으로 대변된다. 미래지향적 잡아당기기 전략은 배움에 열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즐겁게 학습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셜 플랫폼에서 공유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필요한 지식을 부단히 창조하고 활용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나누는 일종의 지식 생태계이다. 지식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학습자는 각자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나누면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발견(serendipity) 즉 불현듯 떠오르는 직관적 아이디어를 공유한다(유영만, 2017).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배움 공동체가 진정한 미래지향적 교육이다.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신뢰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되며 영유아의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Kontos & Wilcox-Herzog, 1997). 영유아는 교사나 또래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해 간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는 상호작용을 보육활동과 자발적 놀이, 일상적 경험을 포함한 하루 일과 전체에서 영유아의 생각, 행동, 정서 상태, 표현방식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영유아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교사와 영유아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은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존감, 문제해결력, 창의성, 인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김경란, 오재연, 장지, 박경, 2016; 유민숙, 2009; 차금안, 나옥희, 2016)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이론적으로 기술된 대로 상호작용을 잘해내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느낀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교사의 돌봄은 교사와 유아간의 관계가 결코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정서노동의 과정이다(Goldstein & Lake, 2000). 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노동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사가 상호작용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상호작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은 정서노동 외에도 교사자신의 정서지능, 낮은 사회적 지지, 행복감, 교직열정, 낮은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등이다(김수연, 조혜진, 2015; 김시연, 오재연, 2014; 배세은, 문혁준, 2016). 또한 ‘교사용 지도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등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민간차원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교재교구, 해마다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는 프

로그랩 공모대회 등은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교사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기관의 운영자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지식중심의 교육도 교사들을 지시적인 교수법에 머물게 한다.

Schwab(2016)은 미래사회의 훌륭한 리더에게는 의사결정자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연한 관계를 맺는 능력인 상황맥락지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치가 강조될 미래사회에는 사람들 간에 더 밀접히 연계된, 포용적 관계를 잘 구축하여야 엄청난 수준의 혁신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점점 개인중심사회로 향하게 하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의식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은 중요한 능력인데, 그 기반에 신뢰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영유아의 관계맺음에서 출발한다.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의 자원을 공평하게 주고받아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보육현장에서 미래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호혜적인 대화, 영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발문, 지적 호기심을 발현시켜줄 수 있는 생각의 주고받음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사의 상호작용은 미묘하고 섬세해야한다. 어미답과 병아리가 알껍질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신호처럼 교사와 아이 둘 사이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스키는 이것을 근접발달영역(ZPD)이라고 했다. 실제적인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간격이 ZPD다.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 proximal이라는 단어는 아주 밀착되게 가까운 지점, 미묘한 경계를 말한다. 아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마침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을 말한다. 이때의 도움은 ‘약간’이지만 ‘매우 극적인’ 도움이어야 한다.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그 미묘한 경계를 잘 찾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결정적 한 수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현재의 수준에서 도전과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이 상호작용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영유아가 스스로 성취감을 만끽하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높은 수준의 능력이다. 명나라 홍자성의 <채근담>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있다. ‘허물을 책망하는 데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한다. 가르칠 때 선(善)으로 하되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하지 말라. 그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최명희(2016)

##### 5) 협력을 통한 창의성 발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미래형 인재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인성, 그리고 사회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정제영, 2017).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기는 창의성의 황금기라고 한다. 유아기에 인지적 유연성이 있으며 이 시기동안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창의성 발달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며 융통성, 상상력, 문제해결능력이 발달한다(Aminolroaya, Mohammad, Yarmohammadian & Keshtiaray, 2015). 그러나 아무리 높은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 없이는 이러한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도 창의력만큼 영유아기에 형성해야할 중요한 능력이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커서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장경은(2017)은 국경 없는 미래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유아들이 바른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원화된 세계에서 불협화음이나 갈등에 빠지지 않고 공통분모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인성은 지지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유아의 인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경희, 나은숙(2017)의 연구에서 자아가 확립되어 있고 긍정적 생활태도를 지니며 끈기와 자기조절 등 인성적 요소가 잘 발달된 유아가 창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창의성과 인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인수(2011)는 창의성과 인성사이의 공통분모를 열린 마음, 용서와 배려 등의 인성의 요소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요소가 의미상 겹친다고 보았다.

창의성과 인성은 상호호혜적으로 발달한다. Sousa(2011) 즉흥성과 협동성이야말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아들이 시각예술이나 행위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사고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동작을 만들거나 동극을 꾸미는 활동,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완성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생각이 융합되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적용할 때는 앞서 살펴본 여러 이론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인성프로그램에서 영유아기의 인

성은 다양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유아기에는 보다 바람직한 도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 인성교육 지침서에 제시된 활동을 분석한 연구(장경운, 2013)에서 제시된 활동 중 절반 이상이 인성 관련 동화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가 유아들에게 어떤 방식의 행동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알려주는 형식으로 주지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점들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대부분이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유아의 창의성과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창의·인성역량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스승이 노벨상 수상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교사의 역할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황희숙, 김빛내, 박나운(2016)은 교사의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유아 창의성 발달과 관련이 깊으므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장경운, 송승희(2016)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을 유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교사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교사교육 내용에 배려행동과 자기반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유아의 창의성·인성 발달을 위해서도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성을 갖추고 유아의 창의성·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인성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 자신도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 구성, 개인적인 소양발달을 위한 독서, 개방적 온라인 강좌 수강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교실 안에서 실험하고, 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시도하여 어린 학습자들에게 심어주는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존중, 배려, 나눔, 협력, 공감, 책임감, 정직, 약속, 소통... 등이 인성의 요소라고도 한다. 영유아 교사는 그런 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에게 어떤 인성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왜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교사는 왜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사가 그렇게 해야만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이르기를,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닿는 행동이라 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인성의 본바닥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고도의 정신능력이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신과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번갈아 성찰하여야 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처럼 아이를 바라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훗날 어린 아이들의 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도 함께 나아졌다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최명희(2016)

#### IV. 나가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2015)는 한국어 번역본의 서문에서 전쟁과 식민지를 거친 한국이 매우 짧은 기간 만에 저개발 전통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중 하나로 성장했으나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의 이러한 현상이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사람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500년전 시작된 과학혁명은 그 이전의 수만 년의 인류 역사보다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크고 강력했으며 인류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바꿔놓았다. 다른 나라에서 500년간 산업, 경제, 정치, 문화전반에서 서서히 변화해오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100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압축 성장해왔고 그러는 사이 우리 모두는 경쟁에 내몰려있었던 것 같다. 최근 경악을 금치 못할 인면수심의 범죄를 보면서 담장 낮은 선한 나라 백성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마을마다 서당이 있고 그림자도 밝지 않았다는 훈장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황망할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를 살아갈 어린 학습자에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을 무엇인지 혼돈 속에 진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근대 이후 세 번의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류의 삶은 문명화되었으나 개인과 집단 간에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근대 이후 개인의 자아가 인식되기 시작했고 부단히 팽창되었으므로 개인들의 자아가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한 철학적, 사회적, 교육적 노력을 한편 기울여 왔다. 그러나 네 번째 과학혁명인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양상과 속도가 이전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급변하는 테크놀로지와 예측불가능한 분야별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기술을 배워 생산량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

은 이전까지의 과학혁명에서 유효했던 방법이다.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기술이 다른 사람의 기술과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야 하는 시대에 도달하였다. 그런 의미로 영유아를 교육할 때 이 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미래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기본법 제 2조에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함’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홍익인간의 핵심개념은 인간의 존재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 이익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이타주의 사상이 깔려있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미래사회의 인재유형이나 미래사회 교육환경이 바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교육은 학습자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교육기본법 제 9조) 우리는 이미 공고히 알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 인재유형이 어떻게 예견되고 있는지는 본론에서 누누이 확인하였으므로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제고와 실천적 방향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다만, 사회가 좀 더 영유아 교사를 사회변화의 핵심적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몇 가지 신중하게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해본다.

교사교육의 측면에서 제안하자면, 영유아교육이 개별성에 기초하듯 교사들도 개별적 욕구와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아교사의 핵심역량 수준이 다르므로 개별 교사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배진오, 이연승, 2014). 집단적인 획일성 교육보다는 개인의 맞춤형 컨설팅,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 통섭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다 학문적인 접근, 개방적이고 질 높은 온라인 교육시스템, 테크놀로지 기술과 교육의 접목 등 다원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교사양성을 위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제도의 측면에서 제안하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평가제도의 경직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관의 재정, 노무관리, 환경과 위생 분야의 평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평가를 대등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사의 교수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과열 경

쟁으로 치닫게 되고 평가에 준하기 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표항목을 개선하거나 기관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환류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김경철, 김안나, 2010; 심은주, 이경화, 2010; 조민순, 2016). 따라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재구조화하여 교사의 교수행위가 평가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서 자율성을 가지고 실험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교육 외 업무 경감,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근무 중 휴게시간 확보 등 교사의 행복과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상중(2009). **고민하는 힘**. (이경덕 역). 서울: 사계절.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곽향림(2009). 생활주제의 통합적 운영 방안: 교사-유아 상호관점의 생활주제. **어린이교육**, 11(11), 9-36.
- 권귀염(2015). '흥미'에 대한 이해와 실천: 유아교사들의 오해와 혼란, 그리고 갈등. **유아교육연구**, 35(2), 237-262.
-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서울: 광문각.
- 권재원(2014). **학교라는 괴물**. 서울: 북멘토.
- 김경란, 오재연, 장지, 박경(2016).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유아, 교사-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77-300.
- 김경철, 김안나(2010).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체제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한 평가위원의 논의. **유아교육연구**, 30(4), 79-101
- 김경희, 나은숙(2017).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거부적 양육태도, 유아의 인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53-70.
- 김병만, 김미진(2016). 유아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과 행복감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60-192.
- 김수연, 조혜진(2015).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노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191-213.
- 김시연, 오재연(2014).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내적변인과 외적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23-50.
- 김윤경(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방향**. KERI Brief, 16(33), 1-16.

- 김주희, 이병인, 조현근(2016).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일반유치원 교사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6(4), 23-59.
- 김정운(2011). **노는 만큼 성공한다**. 서울: 21세기 북스
- 김희진(2017). 놀이의 관점에서 본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육아지원연구**, 12(3), 5-23.
- 류태호(2016).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은혜 (2009). **유아교사론**. 제3판. 서울: 창지사.
- 박은혜, 김수연, 김희진, 김희태, 박정선, 이대균, 이희경, 조부경, 조형숙, 황해익, 김미석, 김은영 (2010).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5.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2), 65-87.
- 박희숙(2017). 교사의 행복감과 공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2(1), 117-133.
- 방현덕(2017. 10. 6). AI의사 왓슨 의료사고 법적 책임은 인간의사에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에서 2017년 10월 6일 인출.
- 배진오, 이연승(2014).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33-354.
- 보건복지부(2013).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7).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지표**.
- 성태제(2017).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55(2), 1-22.
- 손은주 (2017).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수업이 예비보육교사의 학습동기와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효과. **육아지원연구**, 12(1), 93-116.
- 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2011). 유치원 교원 핵심역량. **유아교육학논집**, 15(5), 203-226.
- 심은주, 이경화(2010). 국가수준 유치원평가의 내용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소속유치원의 설립주체 및 규모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25-47
- 안종배(2017).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 염유식, 김정미, 이승원(2016). **2016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채선(2011). 유아교육보육정책 변화에 따른 유아교사 전문성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49-277.
- 오채선(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전략.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1), 57-84.
- 유민숙(200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 창의성 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유영만(2017). **지식생태계의 대변환이 일어난다**.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pp. 65-70). 서울: 광문각.
- 이경민(2017). 새로운 시대 인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담론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3), 137-156.

- 이경민, 윤혜경(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 담론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적 함의. **유아교육연구**, 37(4), 137-155.
- 이선영(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 23(1), 231-260.
- 이용순(2017). **사라지는 직업, 떠오르는 직업**.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pp. 25-33). 서울: 광문각.
- 이원영(2007). John Dewey의 교육철학에 나타난 유아교육의 주요개념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1(4), 5-27.
- 이재창, 홍후조, 김기은(201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5개 영역 및 교사용 지도서 생활주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255-274.
- 이종욱(2017). **한국의 학생은 행복한가**.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pp. 96-104). 서울: 광문각.
- 임중현, 유경훈, 김병찬(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5-32
- 장경은(2013). 포스트모던 관점을 통한 한국의 유아 인성교육 담론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77(4), 1-20.
- 장경은, 송승희(2016). 관계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유아교사들의 배려행동 실천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157-184.
- 장영재(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과학교육 방향성 모색. **통합인문학연구**, 9(1), 155-180.
- 정미향, 정광순(2017).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기술. **초등교육학연구**, 20(2), 41-63.
- 정제영(2017). **미래 학교제도는 어떻게 변하나**.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pp. 205-214). 서울: 광문각.
- 조민순(2016).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컨설팅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경험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지(2013). 자율성 증진 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15(2), 51-76.
- 주형근, 김선태(2017). **사회적 자본이 경쟁력이 된다**. 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pp. 71-77). 서울: 광문각.
- 차금안, 나옥희(2016). 유아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만 3-5세 차이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279-302.
- 최명희(2016). **교사다움**. 서울: 공동체.
- 최인수(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샘앤파커스.
- 탁정화, 황해익(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문성에 한 인식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 황희숙, 김빛내, 박나운(2016). 블렌디드 러닝 기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의 경험 탐색. **유아교육연구**, 36(5), 61-87.

- Aminolroaya, S., Mohammad, H. Yarmohammadian, & Keshtiaray, K. (2015). Methods of nurturing creativity during preschool term: An integrative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1(6), 204–210.
- Bazlet, J. & Sickle, V. M. (2017). *Cases on STEAM Education in Practice*. PA: IGI Global.
- Bergmann, J., & Sams, A. (2014). Flipped learning: Maximizing face time. *Training & Development*, 68(2), 28–31.
- Bespalov, B. I. (2015). Logical–Semantic and the development of L. s. Vygotsky’s ideas about “units” and “elements” of psychology systems. *Journal of Russian and European Psychology*, 52(5), 13–44.
- Bobbitt, J. F. (2017).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The Curriculum]. (정광순, 이한나, 이윤미, 김경하, 박희원, 이희정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18년 출판).
-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2008). *Early Childhood Educator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Best Practices, and a Public Input Process on Next Steps for California. Research Report*. CA: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Colker, L. J. (2008). Twelv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Young Children*, 63(2), 68–73.
- Csikzentmihalyi, M. (2005). **몰입**[The Flow]. (최인수 역). 서울: 한울림. (원저 2002년 출판)
- Dewey, J. (2011). *Interest and effort in edu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Original work published 1901).
- Dewey, J. (1896). The reflex arc concept in psychology. *Psychological Review*, 3 (4), 357–370.
- Dockett, S. & Tagel, K. (1996). Identifying dilemma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ustralian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 141–160.
- Harari, Y. N. (2015). **사피엔스**[Sapiens].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 Kontos, S. & Wilcox–Herzog, A. (1997). Teachers. interaction with children: Why are they so important?. *Young Children*, 52, 4–12.
- Goldstein, L. S. & Lake, V. E. (2000). Love, love, and more love for children: exploring teachers' understandings of car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8), 861–872.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iefele, U. (1991). Interest,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99–322.
- Schwab, K. (2016). **클라우드슈럽의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6년 출판).
- Schwartz, S. L. & Copeland, S. M. (2013). **발현적 유아교육과정과 표준의 연계**[Connecting Emergent Curriculum and Standard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박은혜, 신은수, 김희진, 이지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0년 출판).

- Sousa, D. A. (2011). **마음·뇌·교육**[Mind, Brain & Education]]. (이찬승, 김미선 역). 서울; 한국뇌기반교육연구소. (원저 2010년 출판).
- Trilling, B. & Fadel, C. (2012) **21세기 핵심역량; 이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21th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교육개발원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9년 출판).
- Vygotsky, L. S. (1980).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rld Economic Forum (2016).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 교사 성장의 무한공간, 학습공동체 이야기

이 선 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 교사 성장의 무한공간, 학습공동체 이야기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 I. 교육의 변화, 시대의 요구를 담아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최강 인간두뇌 바둑천재 이세돌의 바둑대국은 세상에 강한 파문을 일으켰다. 바둑은 다양한 변수의 시계로 인간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초반부터 이세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내리 패했다. 가까스로 완패를 면하고 1승을 거둔 이세돌에게 국민들은 완승을 거둔 것 이상의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이세돌의 1승은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이었다.

알파고와의 바둑대전은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이 몰고 올 미래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래 전에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여진 현상은 그야말로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 인공지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알파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08년 러시아의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가사만 입력하면 30초안에 아름다운 곡 하나를 작곡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도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서는 전 직원이 로봇인 호텔이 현재 성업 중이고 2016년에는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는 가정형 소셜로봇 '지보'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시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을 듯하지만 인공지능을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2030년이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인간의 설 자리, 먹고 살 자리가 없어진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 중 하나는 교육이다. 미래 사회에 학교는 과연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떤 구조의 모습일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렇듯 우리는 지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움켜쥐기 급급할 텐데 오히려 열고 나누고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 미래사회를 위해 세계가 선택한 패러다임은 개방과 협력, 공유와 상생이다. 단적인 예로 2015년 서태지는 자신이 작곡한 <크리스탈로윈>의 스템파일(원천적 특허기술에 해당)을 무료로 개방하여 그 파일을 활용한 대중의 모방창작으로 300개가 넘는 새로운 <크리스탈로윈>이 탄생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전기차 관련 특허기술을 공개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수소차 특허기술을 공유한 토요타, 구동 프로그램을 공개한 레고 등 수익의 원천인 특허기술을 공개하였다. 소유가 아닌 공유로 협력하는 피짜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과거의 단순경쟁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개하고 나누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해져 성장하고 성숙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깨달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시대적 변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개방과 협력이다. 교육의 혁신은 교사 단독에 의해 실현 될 수 없다. 공유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에서 미래 유아교육의 답을 찾고자 한다.

## II. 학습공동체, 과연 꼭 필요할까?

정보화시대에는 이론보다는 경험이 중요시되므로 교사에게도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적 지식, 암묵적 지식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지식은 외부강의를 주로 듣던 개인연수보다는 교사 스스로 현장 경험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경혜(2015)도 교육실천의 장이 탈맥락적이고 일반화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강의를 통한 개인연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스스로 노력하여 성장하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만으로는 날로 더해가는 학생의 다양성과 교육상황의 복잡성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사들의 집단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교사 혼자 노력인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팀과 함께 논의, 대화,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는 팀플레이일 때 교사의 성장은 훨씬 더 효과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보태고 상호 협력을 통해 배워갈 때 진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천(2011)도 교사로 하여금 일과 중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수업 개방, 자료 개방, 대화와 나눔 등을 통하여 자기를 개방하는 학습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 내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를 행정업무 수행기구가 아니라 수업과 학급 운영에서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상황을 나눌 수 있는 학습공동체 성격으로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실천공동체가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학습공동체는 꼭 필요할까?

김현섭(2016)은 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공동체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습공동체를 통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탐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습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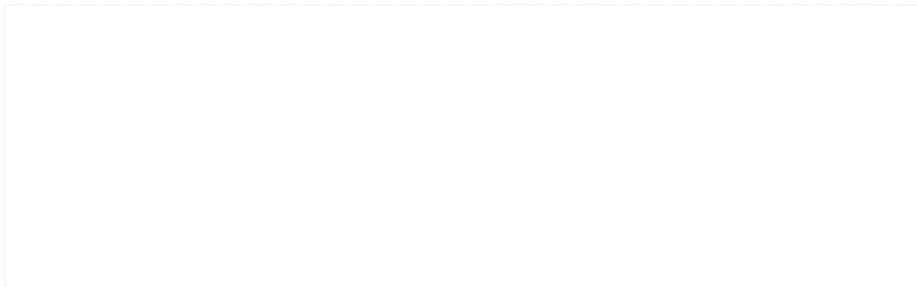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성장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경험하며,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각 개인은 교육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집단지성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다. 교사들은 학습공동체에서 동료들과 수평적 관계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과 공동의 전문성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Ⅲ. 학습공동체란 무엇일까?

- 경기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

#### 1.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정의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날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1917b)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란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교육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 ‘**전문적**’이라 함은 교육이론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대상,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실천사례들도 중요한 전문영역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교사들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학습**’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학습으로 현장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동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방안을 연구해 가는 집단지성을 강조한다.
- ‘**공동체**’는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 개발을 위한 협업적 연구모임으로 학교 개선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관계양식을 의미한다.

김현섭(2016)은 특별히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이 만든 자율적 모임으로 상호간의 공유와 배움으로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태나 학점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학습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 2.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특징

앤디 하그리브스와 테니스 셸리(2009)는 교사 전문성을 기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살아있는 교사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사들은 스스로 가르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도전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연구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교수학습의 여러 쟁점을 탐구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2016)은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발적 활동의지, 가치와 비전공유, 공동 탐구 및 공동 실천, 협력적 상호작용, 학생학습에 중점, 반성적 대화, 결과에 기초한 효과 평가, 전문가의 도움, 연수를 통한 성장, 지원적 환경조성을 제시하였고, 핵심 속성으로 학습중심성, 협력, 반성 및 성찰 3가지를 강조하였다.

조운정(2015)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비전이나 가치 공유, 협력적인 학습, 실천·실험 지향 및 공유, 비판적 반성과 성찰, 정서적지지·지원 환경 조성, 다른 학습공동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자율성: '나'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

자율성이란 외부요인이 아니라 자기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동과정과 결과에 함께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학습공동체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체와 더불어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 ■ 동료성: 신뢰하고 협력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관계성'

동료성이란 상호 개방하고 실행과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 배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동료 간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유하고 공감하기, 서로 좋은 본보기로 동료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등 바람직한 동료성은 학습뿐

만 아니라 심리적 위로와 정서적 치유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2015)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협력지향적 존재라고 한다. ‘동료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적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비고츠키의 인간관은 ‘협력’을 명확한 교육적 가치로 상승시키고 있다. 협력은 본능이며 협력은 경쟁을 넘어선다.

교육혁신은 개인의 고립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협력적인 학습’을 통하여 함께 학습한 내용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업을 변화시켜갈 때 교육개선이 가능해진다. 학습공동체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함께 학습’과 ‘함께 성장’이 가능해진다. 똑똑한 한 명보다는 평범한 열 명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쉽게 증명되는 곳이다.

■ 비전과 가치 공유: 모임의 본질적 이유이자 ‘방향성’

비전과 가치는 모든 구성원들이 왜 모였는지에 대한 철학적·본질적 이유이자 방향성을 말한다. 좋은 관계망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비전과 가치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며,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수립한 비전과 가치는 공동체의 나침반이 되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나 장애가 발생할 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비전과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는 교사들의 직접적인 고민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수립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업성장을 위한 공동체라면 교사 차원에서의 수업혁신과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업혁신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까지도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 학습지향성: 공동연구와 공동 실천을 통한 공동 성장

학습지향성이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과제를 찾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연구하고, 이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공동실천에서 나온다. 교사들은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암묵적인 지식을 서로 간에 습득하고 자신의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학습공동체에서 교사는 개인의 지식을 모아 공동체 전체의 지식으로 확산하고,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적용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2015)에 의하면 인간은 발달지향적 존재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발견할 때 사람들은 큰 기쁨을 느낀다. 자기도 모르게 ‘아하~!’하는 탄성이 나오는 ‘아하현상’의 순간에 우리 몸에서 기쁨의 신경물질이 나온다고 한다. 본능적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교사 또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때 본능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학습지향성은 학습공동체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동력이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배움과 성장이 없는 학습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 반성과 성찰: 반성적 탐구와 공동 성찰을 통한 의미 구성

조운정(2015)은 학습공동체 구성원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단순히 연구한 것을 실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였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실천사례를 보면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성찰하게 되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는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 반성과 성찰은 교사의 성장과 내적 변화의 중요한 기폭제라 할 수 있다. 이 때 ‘비판적 성찰’은 비판을 위한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한다.

서용선(2012)은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에서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말하며 ‘마음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중시하고 연속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로저스는 듀이의 ‘반성’을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서의 반성, 사고의 엄밀한 방식으로서의 반성, 공동체 속에서의 반성, 일련의 태도로서의 반성의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공동체에서의 반성과 성찰은 경험의 공유, 과학적 탐구, 객관적 사고, 통찰을 통한 의미 구성, 인격적·지적 성장 등의 의미를 함축하는 복합적 정신기능이라 할 수 있다.

### 3. 전문적 학습공동체 종류

경기도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의 3가지 형태로 소개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치원 안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나 연구활동 형태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 간의 형태는 원장(감) 지구장학협의회와 더불어, 특별히 2017년 처음으로 어울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공사립유치원 네트워크 단위로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종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초중등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며 학점을 인정하고 있고, 어울림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유치원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간 형태이긴 하나, 유아교육과에서 별도 학점화 신청하여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비슷하다.

학점과 무관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회, 특정영역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운영되고 있다.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교(원)장지구장학협의회, 교(원)감지구장학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을 법제화하여 적용하는 등 학교 간의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4.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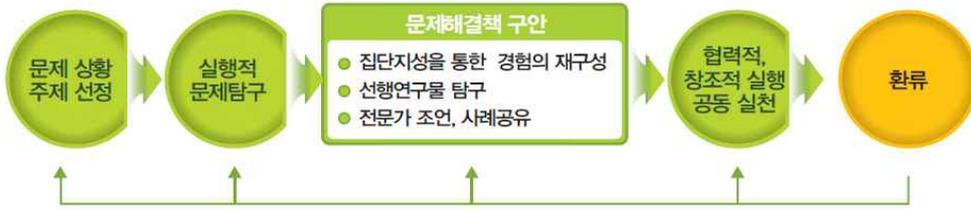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어울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도 융통성 있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운영체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료성에 기반한 실행학습이다.

실행학습은 ① **공공의 문제인식**(문제 상황 주제 선정, 실행적 문제 탐구, 문헌, 사례 탐구 등), ② **자기성찰**(수업 개방과 나눔, 수업 성찰, 수업대화, 수업문화 개선 등), ③ **공동연구와 공동실천**(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수업 개발, 본보기 수업, 수업 나눔, 팀티칭, 공동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 공동작업과 수업 공유 등), ④ **연구결과 공유**(공동연구 결과 발표, 교육과정 세미나, 학년·교과 컨퍼런스, 워크숍 등)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실행학습 과정]



[실행학습 운영방법]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공동체 내 학습조직화를 기반으로 실행학습을 통하여 개인주의와 교실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개방과 공유의 협력문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토론문화, 집단효능감과 역동적 공동체문화 등 집단지성의 공동체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 교실의 수업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창의적 교육활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5.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내용(예)

경기도교육청(2017c)이 제시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를 유치원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전과 가치 공유

○○사에서 유아교육의 특성인 놀이중심과 통합중심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만5세 담임교사들이 모여 만5세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자신을 만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며,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교육중점을 연구하여 실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지를 연구·실천하기로 하였다.

■ 학습조직화

각각 공·사립유치원에 속해있는 교사들은 월2회(1, 3주 수요일) 3시간씩 학습공동체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것을 고려하여 장소는 △△사립유치원에서 모이기로 동의하였다.

■ 실행학습(구체적인 운영 계획)

공동체 교사들은 주제탐구, 공동연구, 공동실천, 수업 나눔, 연구결과 공유 등의 실행학습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운영과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 운영조직: 만5세반 담임

일정	운영단계	운영내용	비고
3월	주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개념과 맥락</li> <li>•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필요성 공유</li> <li>• 만5세 유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주제 도출</li> <li>• 주제 관련 문헌 연구, 사례 발굴</li> </ul>	공고의 문제의식 세미나
4~6월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li> <li>• 국가수준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유치원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 분석</li> <li>• 유치원 탐방 및 운영사례 공유</li> <li>•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개발</li> <li>•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구안</li> <li>• 활동중심 평가 및 기록 예시 공동 구안</li> </ul>	워크숍 전문가 초청강연 유치원탐방
7~11월	공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학급교육과정 운영</li> <li>• 공동 연구한 수업 실행을 통한 자기 성찰</li> <li>• 평가계획에 따른 과정중심 수업밀착형 평가 실시</li> <li>• 유아 활동 관찰 내용 및 평가결과 기록</li> </ul>	자기성찰
	수업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 수업 개방 및 수업 나눔</li> <li>• 제안수업 관찰 및 공동 개발한 수업방법 성찰</li> <li>• 반성적 사유, 자기 성찰을 통한 수업 개선</li> </ul>	수업개방 수업성찰

일정	운영단계	운영내용	비고
12월	연구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말 공동연구 결과 및 성과 공유</li> <li>• 활동중심 수업 결과물 공유 및 개선과정 발표</li> <li>• 집단성장을 위한 교육적 제언 및 토의</li> <li>• 인근 유치원 대상 개방을 통한 연구 활동 공유</li> </ul>	컨퍼런스

#### ■ 평가환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내용의 깊이를 심화하기로 하였다. 비판적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한 해를 평가한 결과는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해 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완벽한 이론도 온전한 실천사례도 아니며 현재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문화, 교육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혁신교육의 성과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된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 전문성이 신장될까?

### 1. 교사의 전문성과 성장

교사는 과연 전문가인가?

‘핀란드 교육혁명’에서 본 교사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부러웠다. 핀란드 교사들은 본보기, 공감, 배려, 이해심, 휴머니티, 공동체, 다름, 다문화주의 등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협력, 책임감의 문화로 연결되어 있다. 지성적 책무성을 가진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위한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패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으로 가르치며 그것의 성취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신뢰하는 문화로 사회는 교사의 전문적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핀란드 교사들은 가장 교육전문가적인 교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교육전문가로 신뢰받기 위하여, 영향력을 받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지성적 책무성, 동료와의 신뢰와 협력, 교육(수업)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판단 등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들이었다.

교사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까?

NBPTS(전미교직기준위원회)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지식, 기술, 태도 등 통합적 관점에서 5대 핵심제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사명감, 교과와 교과교육에 대한 지식, 학습지도, 교육실천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반성적 실천, 학습공동체를 통한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1세기 교사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은 V3SK모델을 통하여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V(Value)3은 세 가지 가치를 의미하는데 학습자 중심의 가치, 교사정체성, 교직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이다. S(Skills)은 기술을 의미하며 교수기술, 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포함한다. K(Knowledge)는 지식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지식, 학생들에 대한 지식, 공동체에 대한 지식, 교과에 대한 지식, 교수학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본다.

김현수(2013)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수업과 관계의 균형 잡힌 관심, 독서와 운동을 통한 자기 돌봄, 연구적 실천자로서의 끊임없는 현장탐구, 소통이 가능한 교사토론집단에 참여,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노력, 자기 과목에 대한 자부심, 진리에 대한 추구(사회의 큰 이야기와 교실의 작은 이야기를 연결 짓기)이다.

위의 7가지 특징 모두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다루고 추구하는 내용들로 혼자보다는 함께 노력할 때 성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특징일 것 같은 수업과 관계의 균형 잡힌 관심이나 자기 돌봄, 교과에 대한 자부심 등도 학습공동체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때 성장이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날 것이다.

## 2. 학습공동체 운영 성과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과연 교사는 성장할까?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의 통계에 의하면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인원의 67.8%,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84.6%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학습공동체의 만족원인을 보면,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한 효능감과 결속력 강화(33.6%)→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변화에 도움(26.0%)→교사의 지적 자극과 연수 기회를 높임(23.7%)→대화를 통한 공감과 위로(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사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성장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에 의하면,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은 성장하였으며 학교의 수업과 교육과정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의 성장

- ‘나의 수업’으로 바라보는 수업의 사유화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업을 교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 교사들은 수업에서의 협력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게 된다.
-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장한 교사들이 학년공동체나 교과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게 되면서 교사리더십을 개발하게 된다.

■ 학생의 변화

- 학생중심으로 수업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학생들은 배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개발된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관된 생활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된다.

■ 수업 및 교육과정의 변화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한 내용이 교육활동에 반영되고 활동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 교과나 영역별 다양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과 간 융합, 교과와 비교과 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학생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교직원간 의사소통능력, 교과에 대한 지식, 자기 반성능력 및 지속적 학습능력, 평가 기준, 방법 및 도구의 개발과 활용능력, 다양한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과 적용방법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재구성 및 편성·운영 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갈급해하는 역량들은 바로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보다 잘 길러질 수 있는 전문성들로서 앞으로 학습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개발영역인 것이다.

### 3. 학습공동체의 운영 사례

#### ■ 일상 속에서 토론으로 소통하는 이우학교 이야기[학교 안]

2017학년도 경기도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67개원에 74개 팀의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755명의 교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치원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지만, 잘 짜여져 계획에 맞게 운영되는 보편적인 학습공동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우학교를 소개함으로써 유치원 내 학습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우학교는 정기적 수업공개 및 연구회를 통해 학생과 수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운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 내부의 소통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있다. 교사회와 교무실은 기본적으로 학년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같은 공간에서 해당 학년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사들 사이의 소통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심리상태,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처방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똑같은 학생이라도 국어시간의 모습과 수학시간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교사의 분석과 대응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공동체는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우학교처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우학교에서 수업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사의 성장을 위해 ‘교사포럼’을 운영하는데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토론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교사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진행과정, 그 속에서의 어려움과 한계 등을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방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역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우학교는 개별교사의 자율적 노력을 집단적인 연구와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수업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유치원에서도 개인중심이 아닌 공동체중심으로, 일상에서 늘 교육과정과 수업을 고민하고, 학급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언제나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한다.

■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는 어울림학습공동체 이야기[학교 간]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한 교육 혁신운동으로 어울림교육을 통하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1개 어울림에 공립 268개원, 사립 38개원 총 306개원의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립 688명, 사립 239명, 총 927명의 교원들이 학습공동체, 부모교육, 유치원 교육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 어울림학습공동체는 모두 28개 공동체에 744명의 공·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5~60시간 범위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울림공동체들은 모임 초기에 관련 전문가의 연수를 통해 이론을 연구하고, 당면한 공동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찾는다.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하면 일련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어울림마다 핵심리더 1~4명이 모임을 헌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평학습공동체는 대부분 1~2학년 병설유치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지역이라 집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월 1~2회 오후 3시 이후에 모여 저녁까지 학습하고 있다. '연극놀이'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재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상호 간에 수업을 공유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모의수업을 통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실천한 수업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유아들과 교사의 다른 시각도 공유하고, 수업사례에 대한 의견도 나누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모의수업을 통하여 유아들의 마음과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다.

고양어울림공동체는 39명의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만3세, 만4세, 만5세 연령별 3개의 수업 나눔 중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 연구를 통하여 공동의 수업안을 계획하고 필요한 교구도 함께 제작한다. 공동 수업안이라도 각 학급에 맞게 적용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매 모임마다 한 회원이 촬영한 수업동영상을 공유하고 수업나눔을 실시한다. 공유한 수업과 관련하여 각자 다르게 적용한 다른 수업 사례를 덧붙여 나누면서 학급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고 고민하게 된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모두가 일상의 수업을 나누다 보니 이젠 편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온다.

동두천양주어울림은 94명의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지원을 받아 3개의 주제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나눔을 위해 주말 1박2일 워크숍, 월 1회 공동연구 및 공동 실천,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대회 등 지역 전체가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실제 수업공개와 나눔은 4인 1조 소그룹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영상 활용을 통한 일상적인 수업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학습공동체를 더 세분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안산어울림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다문화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대상 유아들이 많은 공·사립유치원 교사 47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형태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 일원에는 90여 나라의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이 있고, ○○병설유치원은 100%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다니는 상황이다. 의사소통 문제,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고, 대부분 교사 개인이나 단위 유치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에 대한 문제와 고민들을 모아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학부모교육자료(번역 포함) 개발 공유, 다문화 놀이 체험활동 공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운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다문화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성장을 넘어 유치원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성오산 엘리스어울림은 공·사립유치원 교사 80명이 신체활동, 게임, 음악, 생태의 4가지 주제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조사를 통하여 주제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4명의 핵심리더들이 각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4명

의 핵심리더들이 협력하여 전체적인 운영방법과 사례를 공유하여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전체 연수나 발표회를 통하여 다른 공동체의 사례도 공감하고 있다. 연수를 통해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적용한 수업을 공개하고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사 개인의 성장과 수업능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어울림학습공동체는 리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성장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성과를 점검하기 보다는 공동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찰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에는 어울림공동체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자연탐구학습공동체 이야기[학교 밖]

수원 지역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자연탐구학습공동체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유치원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자연탐구영역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우리 공부하자’는 제안에 갑자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소규모 유치원에서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은 방과 후 모여서 공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였다.

누리과정 지도서에 수록된 자연탐구영역의 교육활동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활동들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필요한 활동자료와 교구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수업안을 공유하며 각자의 유치원 상황에 맞게 실천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이어갔다. 실천사례를 토론하면서 수정하여 완성한 연구결과물은 자료집으로 엮어 공유함으로써 일반화하였다.

교사들의 자발성은 책무성을 동반하였다. 각자 자기가 연구하여 발표할 영역들을 성실하게 연구하였고 개인 역량에 따른 차이는 상호 멘토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완해 나갔다. 외적 동기나 보상이 아니라도 교사의 성장욕구, 성취감, 효능감 등의 내적 보상을 통해 자발성이 더해졌고 ‘여럿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였다.

#### ■ 독서토론 학습공동체[학교 밖]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유아교육디자인연구회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원(교사, 원감, 원장)과 장학사가 함께 어울려 운영하고 있는 독서토론중심 학습공동체이다.

19명의 회원들이 월 1회 퇴근 후 모여 다양한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를 즐기고 있다.

한현미(2016)는 독서를 통한 학습공동체는 단순히 책을 읽고 기분을 전환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이 있고 성찰이 있으므로 교사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밝혔는데,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디자인연구회가 바로 그러하다.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혁신교육 존듀이에게 묻다’ 등 혼자서는 잘 읽지 않는 책들을 읽고 나누면서 교육현장을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실천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교육방향을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처음에는 독서토론 방법을 몰라 독서토론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아주 즐겁게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 경험한 즐거운 독서토론은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회원들도 꾸준히 즐겨 읽게 되었고, 우리끼리도 자연스러운 독서토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7시에 김밥을 먹으며 시작한 토론은 11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시달려 피곤한 몸일 텐데도 회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공동체 안에 교육적·전문적 성장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정서적 위로와 고민을 나누면서 힐링하기 때문인 것 같다. 1년 정도이지만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유아교육디자인연구회는 모든 회원이 함께 뚜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길 터주기’이다. 유아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길을 열어주고 꾸준히 역량을 길러 좋은 멘토가 되자는 것이 그것이다. 공동의 비전은 회원들로 하여금 보람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 결속력이자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된다. 공유와 협력이 곧 성장의 강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 V. 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 1. 학습공동체의 성장과정

학습공동체와 구성원인 교사의 정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성장하면 학습공동체도 성장하고, 학습공동체가 성장하면 더불어 교사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공동체도 성장할까?

김현섭(2016)은 학습공동체도 공감하기, 정체성 및 공동체성 세우기, 배우고 실천하기, 연구결과물 산출하기, 리더십 세우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밝혔다.

■ 공감하기

학습공동체의 시작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하기이다. 구성원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공감함으로써 공동체가 안전한 곳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정체성 및 공동체성 세우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모임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신념, 철학을 정리하고 회식이나 MT 등을 통해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 배우고 실천하기

모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확립되었다면 다음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 전문성은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모임 수준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구성원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연구결과물 산출하기

연구하고 실천한 결과는 산출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리더십 세우기

모임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적절한 시점에 리더십이 이양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리더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차기 리더를 세워간다.

이러한 성장과정이 반드시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러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계별로 성장속도가 다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기가 잘 이루어져야 전문적 연구와 실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연구와 실천 등의 전문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구성원들이 만족감을 갖게 되고 신뢰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

## 2. 학습공동체의 성공요인

학습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성공요인을 형성, 발전, 정착의 3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형성요인(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초기에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
  -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
  - 정기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는 것
  - 업무경감을 통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
- 발전요인(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학교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어 있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교사들이 내리는 것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한 내용을 함께 실천하는 것
  - 구성원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정착요인(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학교 내에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
  - 교사의 내적인 자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 리더와 구성원 간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끝난 후,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차기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내용과 형태에 대해 반영하는 것

이석열(2015)은 학습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리더교사의 헌신,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욕구, 교직생활에 대한 성찰 등 3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 리더교사의 역할
  - 팀의 리더교사가 어느 정도 열정과 헌신을 보이느냐에 공동체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다. ‘처음해 보는 모임’, ‘익숙하지 않은 모임’을 경험하는 교사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리더의 몫이므로, 누가 리더가 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욕구

교사들은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동료교사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운 것들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감도 얻고 보람도 느끼며 동료교사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면서 교직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느끼기도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게 되고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채워가게 된다.

■ 교직생활에 대한 성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동료교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동료애를 느끼며 교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를 중심으로 동료와의 관계성과 교육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교육적 고민과 열정이 넘치는 교사라면 직접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리더가 되어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

### 3.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김은영(2016)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의 운영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의견으로 소통과 공감의 학교 조직문화 개선, 운영의 자율성 부여, 연수 이점 학점 자율화, 연수 환경 개선, 연수 내용 및 콘텐츠 다양화, 전문 강사 인력풀, 재정 지원, 규모 주제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은영(2016)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발전 방안으로 학교 밖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연구위원들이 학교 안 학습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지원하는 방안, 학교 밖 학습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소수 교과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진철(2015)은 3가지 차원에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 차원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접근하고 실제수업과 학생지도

에 적용하는 성장경험의 폭 넓히기,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 조화와 협력, 교사의 자발성과 책무성 인식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교 차원이다. 교육과정중심, 학년체제로 학교 업무를 합리적 구조로의 변화,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자의 리더십 요구, 학교 안과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청 차원이다. 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 개선, 인간 본성 이해와 다면적 존재로의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건조함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 중장기적 성장과 변화의 속성을 반영하여 진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한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정책 제안 등을 제안하였다.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는 교육기관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개인, 학교, 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활성화라는 의미는 양적인 확대나 확산의 의미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과 공동체의 질적 성장이라는 질적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또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교육운동이자 공동체의 문화운동으로 접근해야 부작용이 적은 즐거운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 VI.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두 함께 성장하기

학교는 완고한 조직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외부적 자극이나 압력이 가해져도 학교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어떤 교육개혁 정책도 학교 내부로부터 개혁과 연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학교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학습공동체이다.

여러 학교의 사례를 돌아볼 때, 학교의 자발적 개혁 노력은 학습공동체로부터 시작되며,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완성해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공동체는 개인의 성장과 집단의 성장을 실천적 경험으로 입증한 증인들이 후배 교사들에게 제시하는 성장의 지침이며, 임상적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혁신의 한 방법인 것이다.

성열관(2011)은 교육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교사들을 분열·고립시키는 장벽, 즉 교실의 밀폐성 때문이라고 보고, 행정중심의 학교 조직을 교수-학습 중심의 학습조직

으로 바꾸면서 교사들의 모임을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개혁이라 주장하였다. 외과수술방식인 교원평가와 결합한 수업공개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수업연구회와 같은 현장의 임상연구와 연수를 강화하는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학습공동체의 구축 등 연구·연수기관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 실천적 교육전문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습공동체의 핵심이다.

그러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교육청(2017a)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학교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주의나 불간섭주의로 표현되는 교사문화와 폐쇄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사 개인적인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집단역량을 기르고 학교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상의 움직임은 경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학교의 한 축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학습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사 혼자 고군분투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고립적 성장이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성찰하는 협력문화만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흐름에 교사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대학 등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사토마나부(2009)가 소개한 일본의 사례처럼 학교를 지역에 개방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수업 만들기와 교육과정 만들기에 동참해 서로 배우는 관계를 구축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마을마다 구축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론적 전문가인 지역의 대학들이 동참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학습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실천적 교육운동을 펼쳐간다면 교육혁신은 질적으로 심화될 것이라 사료된다.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확산은 없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부족한 ‘나’이지만 시작하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한다. 그것이 곧 부메랑이 되어 ‘나’의 곱절인 ‘우리’의 성장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연구원(2017). **교육시선 오늘(2017년 03호)**.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기도교육청(2017a). **궁금하면 펼쳐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Q&A**.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경기도교육청(2017b).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경기도교육청(2017c).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학교혁신을 만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경기도교육청(2017).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Ⅱ**.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김성천(2011).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드림
- 김은영, 서지연, 이범우(2016). **학교 안과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실태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진철, 임현화, 강정화, 이영선(2015).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현섭(2016). **수업성장**. 수업디자인연구소
- 김현수(2013). **교사상처**. 에듀니티
- 사토마나부(2009).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손우정 역). 서울: 학이시습
- 서경혜(2015). **교사학습공동체**. 서울: 학지사
- 서용선(2012).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서울: 살림터
- 성열관, 이순철(2011). **한국 교육의 희망과 미래 혁신학교**. 서울: 살림터
- 이석열(2015).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앤디 하그리브스와 데니스 설리(2009). **학교교육 제4의길**. 21세기교육연구소
- 정광필(2008). **이우학교이야기**. 갤리온
- 조운정(2015).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원리’, 행복한 교육(2015년 10월호)**. 교육부
- 조운정, 주주자, 임현화, 박시영, 홍석희(2016).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 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연구실천모임(2015).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서울: 살림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2010). **핀란드의 교육혁명**. 서울: 살림터
- 한현미(2016). **독서로 성장하는 교사학습공동체 더불어 읽기**. 서울: 맘에드림
- KBS<명견만리>제작팀(2016). **명견만리(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 인플루엔셜



#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personality and teaching aptitude test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personality and teaching aptitude test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19조3항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회 이상, 2년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회 이상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교육부, 2017).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예비교사양성 표준에 교직성향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으로 교직인·적성, 성향 등을 지도하게 하고 있다.

교사의 인·적성, 성향 등은 유아, 가족, 동료, 지역사회에 대한 행동과 효과적인 교수에 영향을 주고, 유아의 학습, 동기, 발달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 성장 등 실천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지적 특성이다(Almerico et al., 2011; Usher, Usher & Usher, 2013). 교직인·적성, 성향 등이 부족한 경우, 교수와 학습이 힘들어지는 등 교직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ummins & Asempapa, 2013). 따라서 예비유아교사 양성대학은 교직인·적성 평가를 통해서 교직인·적성이 부족한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준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직인·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Cummins & Asempapa, 2013). 더욱이 교직인·적성은 개인적인 타고난 특성이나 기질과 달리 학습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Thornton, 2006). 교직인·적성에 대한 평가는 교직성향을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모니터링 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Rike & Sharp, 2008). 그런데,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평

\* kidis@ginue.ac.kr

가도구의 선정 및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사양성대학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성향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Notar, Riley & Taylor, 2009).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주관하여 개발한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김정환 외, 2013)와 일부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조주연 외, 2007) 대부분이 초·중등 예비교사의 교직성향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피험자로 포함되지 않아서 유아교사양성기관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해서 관련 문헌분석을 토대로 구성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검사도구(안)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수정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구성

#### 1) 문헌분석

이론적 배경 구성,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영역 및 내용의 개념화, 검사도구 문항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 및 문헌, 기존 평가도구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내용 타당도

내용타당도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교원 12명, 유아교육과 교수 9명으로 총 21명이다. 이들에게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에 대한 내용타당도 정도(4점 척도)를 평가하게 하고, 타당하지 않은 문항은 구체적인 이유를 기술하게 하였다. 타당성 정도를 기술통계(평균)로 산출하고, 평균 3점 이하 문항은 연구자간 협의를 거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 2.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도·신뢰도 검증

### 1)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타당도를 위한 조사대상은 3,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 총 535명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문헌 분석 및 내용 타당도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개인배경을 묻는 4문항, 교직인·적성을 묻는 116문항(5점 척도)으로 총 120문항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 간에 상관(.40~.27)이 있기 때문에 요인추출은 주축요인, 사각회전(오블리민)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4) 연구절차

구성된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을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 20명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9월 1주에 실시하였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2017년 9월 1주에 연구대상 대학 교수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9월 3주~10월 1주까지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을 회수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구성

#### 1)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검사검사도구 내용 분석

문헌 분석에 기초하여 1차 구성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은 '열정·책임감(16문항), 윤리·신뢰(6문항), 자기조절·자신감(10문항), 주도성(9문항), 개

방성(12문항), 전문성 발달(9문항), 사고력(14문항), 협력(19문항), 타인존중(11문항), 의사소통(18문항)’의 10요인 총 1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내용타당도

전문가 내용타당도의 평균은 3.75(4점 만점)이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은 유사 문항, 범주와 문항의 관계성 등으로 유사 문항과 타당하지 못한 문항 9문항을 삭제하였고, 문항 추가 권유에 의해서 1문항을 추가하였고, 구체성 및 문맥 등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에 의해서 구성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은 열정·책임감(15문항), 윤리·신뢰(6문항), 자기조절·자신감(10문항), 주도성(8문항), 개방성(6문항), 전문성 발달(9문항), 사고력(13문항), 협력(20문항), 타인존중(11문항), 의사소통(18문항)’이다.

## 2.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도와 신뢰도

### 1)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도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KMO(Kaiser-Meyer-Olkin)는 .97이고, Bartlett  $x^2$ 는 45310.52( $df=6670$ ,  $p=.000$ )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 값( $h^2$ )은 .30 이상이였다.

표 1.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검사도구(안)의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3	.70	.65	94	-.76	.69	1	.61	.62	62	-.72	.63	106	.72	.64
72	.65	.58	93	-.71	.68	3	.60	.60	63	-.71	.66	109	.61	.62
70	.60	.63	90	-.60	.66	6	.56	.54	61	-.55	.52	114	.58	.60
79	.48	.61	91	-.59	.67	13	.55	.65	64	-.54	.53	107	.57	.64
77	.48	.60	92	-.58	.64	14	.53	.70	59	-.48	.48	115	.55	.52
71	.45	.59	95	-.51	.54	4	.47	.40	65	-.48	.52	113	.51	.49
80	.45	.61	89	-.51	.62	15	.46	.62	49	-.45	.52	105	.51	.50
78	.42	.58	96	-.47	.63	5	.37	.56	66	-.42	.52	108	.49	.66
74	.39	.54	101	-.45	.64				48	-.40	.57	104	.44	.35
43	.36	.47	97	-.43	.59				60	-.37	.48	116	.37	.54
76	.36	.54	111	-.41	.55				50	-.36	.52	110	.37	.52
68	.35	.58	99	-.41	.51				54	-.35	.48	112	.36	.53
69	.31	.49	88	-.39	.53				58	-.32	.53	100	.29	.56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87	.30	.47	102	-.29	.52				55	-.29	.51	103	.28	.51
45	.25	.52	86	-.25	.51				53	-.27	.51	75	.27	.33
			44	-.23	.47				67	-.23	.49	98	.21	.38
아이겐 값: 43.07			아이겐 값: 5.50			아이겐 값: 2.91			아이겐 값: 2.22			아이겐 값: 1.91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문항	요인 계수	공통성
8	.75	.60	24	.67	.57	40	.60	.54	82	.54	.59	17	.52	.53
9	.71	.65	23	.64	.54	36	.59	.57	84	.47	.63	20	.51	.54
7	.68	.48	25	.62	.56	34	.54	.62	83	.42	.57	16	.46	.47
10	.62	.63	26	.54	.42	29	.54	.61	81	.35	.41	18	.45	.55
11	.46	.58	28	.42	.43	33	.53	.58				52	.36	.45
19	.44	.47	27	.33	.52	32	.51	.56				51	.32	.47
2	.33	.48	21	.25	.36	41	.49	.51				46	.28	.48
12	.31	.45	56	.25	.56	37	.48	.50				57	.26	.55
22	.27	.40				42	.48	.53						
						30	.46	.53						
						31	.45	.43						
						38	.43	.51						
						35	.42	.51						
						47	.348	.557						
						39	.309	.259						
						85	.309	.513						
아이겐 값: 1.80			아이겐 값: 1.56			아이겐 값: 1.329			아이겐 값: 1.264			아이겐 값: 1.065		
KMO .97 Bartlett $\chi^2 = 45310.52$ $df = 6670$ $p = .000$														
요인 추출 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오블리민(사각회전)														

## 2)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요인 및 문항 조정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요인분석 결과, 중복된 요인 9요인(4문항)은 삭제하고, 요인계수 .30미만인 문항(16 문항)과 요인에 부적합한 문항(2문항) 등 총 22문항을 삭제하였다.

## 3)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신뢰도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과 총점의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94~.83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수정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 검사도구(안)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 검사도구(안)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해서 협력(14문항), 타인존중(12문항), 열정·헌신(8문항), 전문성 발달·문제해결력(13문항), 의사소통 능력(12문항), 책임감(8문항), 자기조절력(6문항), 자신감·개방성(15문항), 윤리·신뢰(6문항) 등 총 9요인 94문항으로 수정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 검사도구(안)이 예비유아교사 교육에서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적성 검사도구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직원·적성 검사도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검사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검사를 통하여 단순히 적합성을 판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기 보다는 교직원·적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교직원·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 검사방법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직원·적성 검사도구는 대부분 자기평가도구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평가 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의 교수나 실습유치원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방법에서도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뿐 아니라 관찰, 저널 및 면접에 의한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 대해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내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통해서 예비유아교사 교직원·적성 검사도구(안)을 개발하였다. 보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의표집에 의해서 제한된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예비유아교사 인원, 지역, 수학연한, 학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예비유아교사 양성 대학에서 개발된 예비유아교사 교직인·적성 검사도구 (안)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과 기준 점수를 제공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 김정환, 남현우, 염시창, 임진영 (2013). 교직 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주연, 백순근, 임진영, 여태철, 최지은 (2007). 초등교직성검사(TAPST)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0(2), 161-182.
- Almerico, G., Johnston, P., Henriott, D., & Shapiro, M. (2011). Dispositions assessment in teacher education: Developing an assessment instrument for the college classroom and the field. *Research in High Education Journal*, 11, 1-19.
- Cummins, L., & Asempapa, B. (2013). Fostering teacher candidate disposition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13(3), 99-119.
- Notar, C. E., Riley, G. W., & Taylor, P. W. (2009). Dispositions: Ability and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1(1), 1-14.
- Rike, C. J., & Sharp, L. K. (2008). Assessing preservice teachers' dispositions: A critical dimension of professional preparation. *Childhood Education*, 84(3), 150-153.
- Thornton, H. (2006). Disposition in action: Do disposition make a difference in practice?.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4(2), 53-68.
- Usher, L., Usher, M., & Usher, D. (2003). Nurturing Five Dispositions of Effectiv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annual symposium on educator dispositions.  
[http://dartep.org/handouts/Dispositionsproceedingsession\\_P.pdf](http://dartep.org/handouts/Dispositionsproceedingsession_P.pdf)에서 2017년 10월14일 인출



#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th and Manipulative Activity of Five-year-old  
Children According to the Activity Theory

전우용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th and Manipulative Activity of Five-year-old Children According to the Activity Theory

전우용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유아교육기관의 실내교육환경 중 수·조작 영역은 소근육 발달, 수학·사회과학적 개념 습득, 논리·수학적 문제해결, 언어 학습 등을 도울 수 있는 교구들로 구성된 영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Frost & Kissinger, 1976; Johnson, Christie, & Wardle, 2005/2006; Rowen, Byrne & Winter, 1980). 유아들은 수·조작 영역에서 주로 개별적인 탐색활동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교구를 사용해 놀이하는 가운데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집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유아들은 수·조작 영역에 제시된 교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는 Vygotsky, Leont'ev, Engeström 등이 제시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토대로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을 분석했다. 활동이론은 하나의 활동(activity) 또는 활동체계(activity system)를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여기며,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목적적인 행동인 활동을 활동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활동이론은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인 활동을 바라보며 역사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분석한다. Engeström(2001)에 따르면, 활동체계는 주체, 목표, 매개체,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로 구성된다. 주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purin1011@hanmail.net

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해내며, 주체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초점을 둔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구성된 수·조작 영역에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교구를 선택하고 활동체계를 형성하며 활동하므로 활동이론을 수·조작 영역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을 이해하고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적인 틀로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이론을 통해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이현주, 정가운, 2013; 정진수, 이응주, 2013)가 이루어졌으며, 성인·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일터, 조직, 공동체의 학습과 발달, 활동체계의 변화과정을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김소현, 유영만, 2016; 김효경, 윤창국, 2014; 이윤하, 2010; 황세영, 김남수, 2014)가 이루어졌다. 활동이론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이 학습하고 변화·발전해나가는지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나 유아교육을 대상으로 활동이론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유치원 만 5세 슬기반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수·조작 활동양상을 탐구하고, 수·조작 활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수·조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장의 교사들에게 수·조작 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3. 활동이론에 따른 만 5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들이 수·조작 영역에서 경험하는 활동체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수·조작 활동양상과 수·조작 활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

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했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사랑유치원 만 5세 슬기반 유아 25명과 교사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치원 만 5세 학급에 구성된 수·조작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과 활동체계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수·조작 영역이 잘 구성되어 있고 유아가 놀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는 유아교육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 3. 연구절차

연구자들은 2016년 3월 3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참여관찰, 형식적·비형식적 유아 및 교사 면담, 문서 수집과 함께 동영상 촬영, 오디오 녹음, 현장 약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관찰 당일 관찰한 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했으며, 관찰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느낀 점, 궁금한 점을 관찰자의 코멘트로 기술했다. 이후 현장노트와 면담전사본을 반복해 읽으며 예비범주 목록을 작성했으며(Bogdan & Biklen, 2007/2010), 분석을 통해 상위범주를 만든 후 하위범주목록을 구체화했다. 작성된 범주를 토대로 다시 사례를 읽어가며 부호화 범주를 나타내고 코딩한 범주에 따라 분류한 사례를 해석하며 그 의미를 서술했다.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삼각측정법을 실행했으며, 연구대상자인 교사와의 구성된 검토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고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했다(Bogdan & Biklen, 2007/2010; Merriam, 1998/1994).

## III. 연구결과

### 1. 슬기반 수·조작 활동체계의 구성요소

슬기반 수·조작 영역에서 나타난 활동체계는 주제, 목표, 매개체,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활동체계에서 주체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매개체를 활용해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의 결과를 산출한다(Engeström, 2001). 슬기반 수·조작 활동체계의 주체는 유아 25명과 교사 1명으로, 개별 또는 소집단을 이루어 활동에 참여했다. 목표는 각 교구에 내재된 목표 또는 활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로, 주체가 사용하는 매개체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수·조작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각자의 동기와 의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으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교구를 매개체로 선택해 활동했다. 주체와 목표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수학 학습 교구, 언어 학습 교구, 사회 학습 교구와 일상생활 관련 조작 활동교구로 구분된 물리적 도구와 언어,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상징적 도구가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매개체인 수·조작 교구로부터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유아들은 교구의 활동방법 설명서를 비롯해 수·조작 교구 소개, 또래친구의 시범 등과 같은 상징적 도구를 매개체로 사용했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사나 또래친구에게 활동방법을 설명해주거나 직접 시범을 보였다. 수·조작 활동체계 안에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며 활동의 목적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칙이 존재했으며, 동일한 수·조작 교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유아들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활동체계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일과 운영이나 선택한 교구에 대한 선호도, 능숙한 정도, 교우 관계 등에 의해 유지되거나 해체되었다. 주체와 구성원들은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평적 또는 수직적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아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체계를 유지하고 활동의 목표를 달성했다.

## 2. 활동이론에 따른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양상

슬기반 수·조작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활동은 제1세대에서 제3세대로 구분된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활동이론에 제시된 활동체계 모형은 제3세대 활동이론으로 갈수록 확장되었으나 제1세대 활동이론의 기본 활동체계 모형은 유지되었다.

### 1) 제1세대 활동이론에 따른 수·조작 활동 양상

제1세대 활동이론에서는 주체와 목표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으며, 물리적

도구나 상징적 도구에 의해 매개된다(Engeström, 2001; Jonassen & Land, 2000; Vygotsky, 1978). 유아들은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조작 교구를 매개로 주체, 목표, 매개체로 이루어진 제1세대 활동체계 모형을 구성하고 활동을 실행했다. 유아들은 수·조작 영역에 제공된 교구를 선택한 후 교구에 제시된 활동방법에 따라 활동하며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또한, 교구에 제공된 자료를 살펴보고 새로운 활동방법을 만들어 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며 다른 활동방법을 제안했다. 따라서 동일한 수·조작 교구라도 활동의 주체에 따라 다른 목표와 결과를 지닌 다른 활동체계가 형성되었다.

## 2) 제2세대 활동이론에 따른 수·조작 활동 양상

제2세대 활동이론은 인간의 학습이 지닌 집단적 측면을 강조하며,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활동체계를 설명한다. 주체, 목표, 매개체로 이루어진 제1세대 활동이론의 기본 구조에 규칙, 공동체, 분업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활동의 집단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슬기반 유아들과 교사는 집단을 형성해 활동할 수 있는 수·조작 교구를 매개체로 제2세대 활동체계 모형을 구성했다. 그들은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교구에 제시된 규칙에 합의하고 지켜나갔으며, 역할을 분담해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조작 교구를 매개로 집단 수준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방법을 고안해내거나 매개체인 수·조작 교구의 용도를 바꿔 다른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할 때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행동을 보였다.

## 3) 제3세대 활동이론에 따른 수·조작 활동 양상

제3세대 활동이론은 하나의 활동을 넘어 관련된 다른 활동과의 관계까지 확대된 활동체계 네트워크를 제시하며,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닌 활동체계들이 새로운 활동체계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설명한다. 유아들은 서로 인접한 활동체계들 간에 나타나는 모순이나 협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확장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슬기반 수·조작 영역에서도 둘 이상의 활동체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활동체계가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닌 활동체계들이 변화·발전되어 제3세대 활동이론에 제시된 확장된 활동체계 모형을 구성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 3. 활동이론에 따른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

유아들이 수·조작 영역에서 교구를 선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주체, 목표, 매개체로 이루어진 활동체계의 기본 모형이 형성된다. 활동이론의 시각에서 수·조작 활동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체 관련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

주체 수준에서 수·조작 활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유아가 주체로서 수·조작 활동을 하는 동안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스스로 교구를 선택하고 활동하는 동안 결과에 책임지고 활동의 주도권을 갖는 경험을 하며 자기 주도 학습을 이뤘다. 둘째, 유아가 주체로서 활동을 수행할 때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발달시킨다. 유아들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겼다. 셋째, 유아가 공동 주체로서 활동할 때 협력학습이 이루어진다. 활동하는 동안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업을 서로에게 의존하며 함께 해결했다. 넷째, 유아가 공동 주체로서 활동할 때 유아의 상호주관적 이해가 높아진다. 집단 수준의 활동을 경험하는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며 상호주관적 이해를 높였다. 다섯째, 유아가 주체로서 수·조작 활동을 하는 동안 딥러닝(deep learning)이 이루어진다. 특정 교구를 매개체로 한 수·조작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유아들은 교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고차원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 2) 목표 관련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

목표 수준에서 수·조작 활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수·조작 활동에는 개인적 수준의 목표와 사회문화적 수준의 목표가 존재한다.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활동체계 안에서 유아들은 개인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며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둘째, 수·조작 활동에서의 수학·언어·사회 학습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주도한다. 유아들은 활동하는 동안 지식을 구성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학습과 관련된 인지발달을 이뤘다. 셋째, 수·조작 활동 종료 시 다양한 유형·무형의 결과물이 산출된다. 유아들은 완성된 퍼즐, 지시사항을 완수한 게임판

등과 같은 유형의 결과물과 사회과학적·수학적 개념 형성, 언어학습, 소근육 발달과 같은 무형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 3) 매개체 관련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

매개체 수준에서 수·조작 활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유아는 수·조작 교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 유아들은 구체물인 교구를 조작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식을 형성했다. 둘째, 유아는 수·조작 교구를 매개체로 한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활동과 놀이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는 각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교구에 포함된 자료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상상놀이를 했다. 셋째, 유아는 수·조작 교구를 매개체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한다. 유아들은 높은 수준의 과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활동의 과정에 참여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수·조작 영역에서 만 5세 유아들이 경험하는 활동체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유아들의 수·조작 활동양상을 탐구하며, 활동이론에 근거해 수·조작 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슬기반 수·조작 영역에서 나타난 활동체계는 주체, 목표, 매개체,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유아들은 수·조작 활동체계 안에서 자기 학습의 책임을 지닌 주체로, 개별 또는 소집단을 이루며 활동하고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활동체계에서 목표는 주체가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해내도록 하므로 수·조작 영역에 유아 개개인의 수준이 반영된, 다양한 유형과 내용 범주를 지닌 교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슬기반 수·조작 영역에서 유아들과 교사는 개별 또는 집단을 이루어 수·조작 교구를 매개로 제1세대에서 제3세대 활동이론에 제시된 활동체계를 형성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활동의 주체가 되어 교구에 제시된 활동방법에 따라 활동했으며, 활동방법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 활동했다. 또한 수·조작 교구에 포함된 자료가 지닌 특성을 반영해 매개체로 사용하는 교구의 용도를 변경시키며 수·조작 활동이 아닌 다른 유형의 활동을 실행했다. 유아들이 활동의 주체로서 교

구를 선택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수·조작 활동의 교육적 함의는 활동체계의 기본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인 주제, 목표, 매개체에 따라 도출되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의 교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스스로 교구를 선택하고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활동체계를 형성하며 활동을 실행했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활동 주체로서 유아의 역할과 수·조작 영역 및 활동의 의미를 간과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조작 영역의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수·조작 영역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아들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체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수·조작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수·조작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 김소현, 유영만(2016). HRD담당자의 활동체제 형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대기업 A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9(4), 145-185.
- 김효경, 윤창국(2014).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제 변화과정과 의미. *平生教育學研究*, 20(2), 1-33.
- 이윤하(2010). 활동이론에 터한 일터 무형식학습 뿌리내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정가운(2013). 과학관련 사회쟁점 수업에서 과학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한 분석: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5), 413-433.
- 정진수, 이응주(2013). 문화-역사적 활동 이론(CHAT: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에 기초한 생명과학 수업 활동 분석. *생물교육*, 41(3), 446-458.
- 황세영, 김남수(2014). 문화역사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교생실습 활동의 분석. *韓國敎員教育研究*, 31(1), 141-170.
- Bogdan, R. C., & Biklen, S. K. (2010). *교육의 질적 연구방법론*(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 (원서 2007년 출판)
- Engeström, Y.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56.
- Frost, J., & Kissinger, J. (1976). *The young child and the educative process*.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6). 놀이, 발달, 유아교육(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 2005 출판)
- Jonassen, D. H., & Land, S. M. (Eds.). (2000).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NJ: L. Erlbaum Associates.
- Merriam, B. S. (1994). 질적 사례 연구법-교육학에서의 질적 사례 연구법(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원서

1988 출판)

Rowen, B., Byrne, J., & Winter, L. (1980). *The learning match: A developmental guide to teaching young children*. Prentice Hall.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ple Identities of the Young Childre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김혜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ple Identities of the Young Childre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김혜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지각, 자기다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박갑룡, 2014; 박아청, 1995; 차우규, 2011). 정체성은 개인의 삶에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체성 확립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은 인생 주기별 위기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체성을 발달시켜간다(Erikson, 1968). 정체성은 특정 시기에 나타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해간다(Grossberg, 1996). 따라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性), 종교, 소속집단, 사회적 역할 등을 비롯하여 여러 관점에서 설명된다는 점에서 다층적 특성을 갖는다(박아청, 1995). 같은 사람이라도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이는 개인의 내면에 여러 정체성이 조화 혹은 모순된 채로 공존하며 다중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이다(Block, 2006; Hall, 1996; Smith-Lovin, 2003).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중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정체성

---

\* 본 논문은 2016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육아지원학회의 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에서 연구비를 수혜받아 수행된 논문임

\*\* briseis@hanmail.net

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다중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두 국가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중정체성을 갖는다.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김예나, 2015;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박갑룡, 2014)도 이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체성은 다층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 측면에서의 다중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 개인의 특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다중정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다중정체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는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가 가장 많다(행정자치부, 2016).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다문화가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자녀들의 다중정체성 연구는 향후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다중정체성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의 다중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다중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은 어떠한가?
2.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바람직한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해 부모들과 교사들이 요구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참여자로 2014년과 2015년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하는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들 중 유목적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5가족을 선정했다. 가족구성원 별로 살펴보면 유아 9명, 어머니 5명, 아버지 4명이었고, 유아들의 교사 10명도 연구에 참여했다. 자료는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했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 당 어머니 면담 6회, 아버지 면담 3회, 유아 관찰 및 면담 7회, 교사 면담 1회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은

자료 정리, 읽기와 부호화, 메모, 범주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 III. 연구결과

####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의 다중정체성

##### 1)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

###### (1) 성장하는 사람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은 자신의 심리적 성장과 신체적, 인지적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점점 자라나는 몸과 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함으로써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 (2) 능력 있는 사람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아들은 태권도와 줄넘기 등의 신체 영역, 춤이나 그림, 악기 연주 등의 예술 영역, 받아쓰기, 글쓰기, 영어, 베트남어와 같은 언어와 인지 영역 등에서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 (3)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유아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아들은 특히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엄마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또한 또래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을 주변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 (4)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

유아들은 자신을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자신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를 언급했다. 이 같은 소속 집단에 대한 언급은 유아들이 집단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 (5)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는 사람

유아들은 엄마를 통해 베트남과 연결되어 있고,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아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몇몇 유아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자신이 친구들에게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부끄럽게 느끼기도 했다.

### 2) 가족 정체성(Family Identity)

#### (1)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유아들은 가족을 일상과 여가생활을 함께 하는 존재로 여겼다. 유아들은 가족과 게임, 개울가 등에 놀러가기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구경하며 일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감을 주는 가족의 존재는 유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 (2)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

유아들은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로 인식했다. 유아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이나 몸이 불편한 할머니 등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을 돌봐주며 가족 간 유대감을 키워나갔다.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은 유아들이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 (3)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들

가족은 유아들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함께 접함으로써 다중정체성을 인식하게 했다. 유아들은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엄마를 보고 베트남어를 배우며 다중정체성을 인식해갔다. 한편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유아들도 있었다. 이러한 생소함이 이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마나라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4) 소통에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은 엄마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가족 구성원들 간 소통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엄마와의 정확

한 의사소통을 위해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유아도 있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인 엄마와의 소통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엄마나라 언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3)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 (1) 한국 사람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스스로 당연시 여기는 국적을 친구들은 궁금해 하며 계속 묻거나 놀리기도 했다. 이 같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이 시행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 (2) 베트남 사람

유아들 중에는 자신을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동일시와 베트남 문화에 대한 아빠의 지지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의 태도와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아들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 (3) 한국 사람도 되고 베트남 사람도 됨

유아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사람도 되고 베트남 사람도 된다고 생각하는 유아도 있었다. 이 유아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 엄마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있었고, 베트남 문화가 반영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 (4) 모름

만 3, 4세 유아들은 자신의 국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 시기에 해당하는 유아들이었다. 이는 유아들의 삶에서 엄마의 출신국과 국적, 자신의 국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바람직한 다중정체성 발달을 위해 부모들과 교사들이 요구한 지원 방안

### 1) 결혼이민여성가족을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기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의 바람직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모와 교사들은 이들을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와 교사들은 유아들의 다중정체성에서 국가 정체성만이 부각되는 사회적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주변에서 자신들을 보통의 한국 사람과 같이 여기길 바랐다.

### 2) 유아의 다문화가정 배경에 지나친 관심 자제하기

부모와 교사들은 사회에서 유아들의 다문화가정 배경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다문화가정 배경에 주변의 지나친 관심을 우려했다. 유아들의 다문화가정 배경을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3) 다문화가정 배경을 유아의 강점으로 인정하기

부모와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아들의 다문화가정 배경을 강점으로 인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유연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이중 언어 습득으로 개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자신뿐 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배경의 강점을 주장했다.

### 4)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문화에 관심 갖기

부모와 유아들은 엄마 나라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랐다. 베트남 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 유아들은 자신과 가족이 인정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친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의 다중정체성이 어떠한지 탐구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해 부모들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기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일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아들의 가족 정체성은 사랑과 친밀감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다문화적 요소가 발견되었다. 국가 정체성은 유아기 발달적 특성을 보이며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유아들의 다문화가정 배경은 주변의 지나친 호기심과 이목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에서는 이들의 국적이나 다문화가정 배경 등 국가 정체성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또래로부터 다문화라는 범주적 차이를 가진 존재로 주목받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성을 의심받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전은희, 2012; Rockquemore & Laszloffy, 2005). 이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국가 정체성만 강조될 경우, 보통의 어린이로서의 보편성이나 한 개인으로서의 특수성은 가려지게 되고 다문화가정 배경만이 부각되면서 차별과 편견이 가속될 위험이 있다(Spears, 2011; Tajfel, 1981). 사회에서 이들의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 성장, 친한 사람들, 소속 집단, 가족애, 가정환경 등 자기 정체성과 가족 정체성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유아들이 건강한 다중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배경을 유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개성 중 하나이자 강점으로서 존중함으로써 바람직한 다중정체성 형성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들의 다양성과 통합성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때 발전해나갈 수 있다(Banks, 2014). 한국 내 공존하는 다양한 소수 문화에 긍정적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국가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중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해가고,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예나(2015).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2015).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갑룡(2014). 한국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연구 : 자아 및 민족·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은희(2012). 모계 국제결혼 가정 아동들의 차이와 가시화에 대한 질적연구. **초등교육연구**, 25(3), 83-112.
- 차우규(2011). 충북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및 도덕의식 조사 연구. **윤리철학교육**, 15, 17-29.
- Banks, J. A. (2014).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방명애, 김혜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 2009 출판)
- Block, D. (2006). *Multilingual identities in global city*. NY: PALGRAVE MACMILLA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Grossberg, L. (1996). Identity and cultural studies—Is that all there is? In S. Hall, & P. Gay (Eds.),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pp. 87-107). SAGE Publications.
- Hall, S. (1996). Who needs identity? In S. Hall, & P. Gay (Eds.),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pp. 1-17). SAGE Publications.
- Rockquemore, K., & Laszloffy, T. A. (2005). *Raising biracial children*. Rowman Altamira.
- Smith-Love, L. (2003). Self, identity, and interaction in an ecology of identities. In P. J. Burke, T. J. Owens, R. T. Serpe, & P. A. Thoits (Eds.), *Advances in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167-178). NY: Kluwer/Plenum.
- Spears, R. (2011). Group identities: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pp. 201-224). NY: Springer.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UP Archive.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및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음악능력

The musical ability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Levels of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in Music

박윤미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및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음악능력\*

The musical ability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Levels of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in Music

박윤미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라 유아의 음악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라 유아의 음악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J, I, K시와 충청남도 D시의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담당 교사와 해당 학급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유아교사 231명의 음악교수 내용

---

\* 본 논문은 2017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briseis@hanmail.net

지식과 음악교수 효능감을 분석하여 상집단 10%(24명)와 하집단 10%(24명) 중에서 학력,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2명씩, 총 8명을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8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15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윤지영(2014a)이 개발한 유아음악교수 내용지식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Riggs와 Enochs(1990)이 개발한 과학교수 효능감 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조형숙(1998)이 번안·수정하고, 방은영과 박찬옥(2005)이 재구성한 음악교수 효능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음악 능력 검사를 측정하기 위해 김현(2016)의 음악 인지능력 검사와 강보라(2012)의 음악 표현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을 살펴본 결과, 상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74.80( $SD=10.25$ ), 하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69.83( $SD=11.15$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02, p<.05$ ).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락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락에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상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11.10( $SD=3.79$ ), 하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8.89( $SD=4.03$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47, p<.05$ ).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상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40.88( $SD=8.37$ ), 하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39.06( $SD=10.49$ )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상집단인 경우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하위요인에 걸쳐 같은 경향을 나타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전체적인 음악 표현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상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77.59( $SD=11.39$ ), 하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66.29( $SD=12.09$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4.06, p < .001$ ). 이에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전체적인 음악 인지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셈여림( $t=2.14, p < .05$ ), 빠르기( $t=2.59, p < .05$ ), 리듬( $t=3.09, p < .01$ ), 가락( $t=2.06,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상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44.59( $SD=12.37$ ), 하집단 유아의 경우 평균 39.18( $SD=9.66$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5, p < .05$ ). 이에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전체적인 음악 표현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악적 유창성( $t=2.18, p < .05$ ), 음악적 독창성( $t=2.22, p < .05$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을 인지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음악교수 내용지식이 높은 교사의 유아가 음악 인지능력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적 개념을 이해한 교사가 음악적 개념 중심의 음악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음악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정아, 권수현과 유주연(2014)의 연구, 교사의 음악적 지식이 풍부할수록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음악활동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민정(200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유아의 음악 능력을 증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Chen(2000)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의 차이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가락’ 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단, 셈여림을 제외한 빠르기, 음색, 리듬, 화음, 형식 등 모든 하위요인에 걸쳐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이 높은 경우 유아의 음악 인지 능력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높은 교사의 유아가 음악 표현능력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 차이의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을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장영숙, 2006; Smith, 1996)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Ashton & Webb, 1986)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Ashton(198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음악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혁신적인 교수기술을 사용하려 시도하며(Gibson & Dembo, 1984)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여(Ashton, 1984) 결과적으로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을 성취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의 차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셈여림, 빠르기, 리듬, 가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음색, 화음, 형식 등의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음악요소 및 개념 등의 다양한 음악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한다는 이상은과 김현수(2014)의 연구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높은 교사의 유아가 음악 표현능력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이 높으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등 음악교육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려 시도한다는 최미영과 정다은(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의 차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효능감 수준이 높은 교사의 유아가 음악적 유창성과 음악적 독창성의 하위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음악적 상상력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에 따른 음악능력보다 음악교수 효능감에 따른 유아음악 능력이 더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보다는 음악교수 효능감에 유아의 음악 표현능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보다 효능감이 유아의 음악 능력에 더 중요한 필요조건이므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이 높았으며,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이 높았다. 따라서 유아의 음악 인지능력과 표현능력 등 음악 능력 발달의 지원에 있어 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음악교수 효능감이 관련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수 효능감이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음악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예비교사 교육과정이나 현직교육을 통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교수 내용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우수교사의 수업을 공유하는 등 실천적 지식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과 충청남도 대전에 거주하는 만 5세 교사와 유아를 임의로 표집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연령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이 유아의 음악 능력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보라(2012).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2016). 음악개념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은영, 박찬옥(2005).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에 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4), 5-30.
- 윤지영(2014). 유아음악 교수내용지식 측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정(2002).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2), 159-187.
- 이상은, 김현수(2014). 유아교사의 음악구성요소에 대한 교수실제와 음악교수효능감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2), 53-76.
- 장영숙(2006).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포괄적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아동교육, 15(4), 73-85.
- 조형숙(1998). 유아교사의 과학교수에 따른 자기 효능감. 유아교육연구, 18(2), 283-301.
- 최미영, 정다운(2013).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음악교수 실제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2(4), 209-233.
- 최정아, 권수현, 유주연(2014).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자아개념 및 음악적 개념에 대한 실제이해와 음악교수 효능감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2), 177-198.
- Ashton, P. 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NY: Longman.
- Chen, Y. Y. (2000). *The self-perceptions of inservice and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in Kaohsiung and Pingtung regions concerning the usefulness of the music content of their teacher training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 Rigg, I., & Enochs, L.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 725-638.
- Smith, J. P. (1996). Efficacy and teaching mathematics by telling : A challenge Form.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7, 387-402.

#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torytelling-Centered Music Appreciation and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Pro-social Behavior

김은정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torytelling-Centered Music Appreciation and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Pro-social Behavior

김은정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산업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중시되었던 20세기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21세기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요구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협동과 나눔, 의사소통 등의 친사회적 능력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는 우리나라 유아 교육에도 반영되어 「누리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질서, 배려, 협력 등의 바른 인성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은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 속에서 습득 될 수 있다. 특히, 음악 감상과 신체표현활동은 생활주제와 관련된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이끌어 내기 좋으며,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해볼 수 있고, 주제에 대해 상상하고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태내에서부터 음악적인 자극에 노출되며, 본능적으로 주변의 소리와 음악

---

\* 본 논문은 2017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김은정(eunjulki@hanmail.net), 심성경(ssky@wku.ac.kr)

에 반응한다. 또한, 청 감각이 민감한 유아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음악 감상활동을 하는 것은 유아에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을 가장 자유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기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음악적 활동에 몰입하게 한다. 유아는 음악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까딱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것은 유아가 음악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Pica(2010)는 유아기 동안의 동작 경험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표현을 위한 교육 방법이므로 이를 유아기에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누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에서도 움직임과 춤 활동이 유아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풍부한 상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동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 감상활동은 전체 음악활동 시간 중 10%에 불과하며(김인실, 2003), 놀이 시간이나 낮잠 시간 등의 배경음악 정도로만 사용하거나 단순히 소리 탐색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인실, 2003). 또한, 신체표현활동의 경우 교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보는 수동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춘애, 2001; 신영희, 2005), 신체활동에 대한 교수방법과 적절한 개입, 교사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은정, 2005; 신소명, 2007; 임혜영, 2013)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유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활동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1세기의 주요 키워드인 ‘감성, 상상력, 소통’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매력 있는 이야기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적절하고 매력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경험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건과 배경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친숙하거나 관심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텔링은 매력적인 음악 감상(김재춘, 배지현, 2009) 및 신체표현활동(박윤정, 2014)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을 고안, 실시하여 유아의 창의성 및 신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전북 I시에 소재한 W유치원 만 5세 유아 51명으로 2개 학급 중 한 학급 25명은 실험 집단, 나머지 한 학급 26명은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누리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3)에 따라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두 학급의 일과와 흥미 영역의 음률 영역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도구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경원(2010)의 「유아용 종합창의성 검사(K-CCTYC)」를 사용하였으며, 창의성의 주요 척도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옥(2003)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PBSYC)」를 사용하였으며,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의 7가지 하위요인을 평정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연구, 검사자 훈련 및 예비검사, 교사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총 20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14주간 실험집단에 대해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수업 설계 모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Ellis & Brewster의 수업 모형을 기초로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3)의 생활주제 및 주제를 고려하여 강미라(2008)의 '스토리텔링 유형'과 Slater(1993)의 '신체표현활동 단계'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고안한 것

이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은 1주를 기본 단위로 음악 감상하기 - 이야기 나누기 - 신체표현하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음악 감상하기는 감각적 음악 감상과 배경 지식활성화하기로 이루어지며, 감각적 음악 감상활동은 매주 월요일 그 주의 음악 감상 곡 소개 및 음악을 들은 후 전반적인 곡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등의 활동이다.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는 매주 화요일에 대집단이나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감상활동으로 스토리텔링 유형 중 ‘음악가와 작품과의 연관성 이야기 듣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 듣기’활동을 통해 음악 감상과 함께 음악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2단계 이야기 나누기는 매주 수요일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를 알아보고 스토리텔링 다섯 가지 유형 중 ‘음악가와 작품과의 연관성 이야기 듣기’를 제외한 4가지 유형(작품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이야기하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작품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상상하여 이야기하기, 작품을 비교하거나 설명하기)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음악 감상 활동을 통해 공감하며 이야기 주고받기, 이야기 짓기의 3순서로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 3단계 신체표현활동 및 평가로 마무리 된다. 신체표현은 이야기 속 동작과 가까워지기, 동작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반응 공유하고 표현하기 순서로 진행되며, 제시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속의 동작을 알아보고 음악과 이야기에 맞춰 신체표현활동을 전개한 후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한다.

#### 4. 자료 분석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연구문제별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증가분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24.0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1.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두 집단의 창의성에 대한 동질성 파악을 위해 창의성 사전검사 평균 점수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t=-.01, p > .05$ ) 두 집단 유아의 창의성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창의성 전체 점수에 대한 증가분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04, p < .001$ ).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55.72( $SD=14.84$ ), 통제집단은 55.78( $SD=17.38$ )이었으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78.51( $SD=13.94$ ), 통제집단은 62.82( $SD=18.14$ )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22.79( $SD=16.04$ )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7.04( $SD=11.48$ ) 증가에 그쳐,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질성 파악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검사 평균 점수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t=-1.00, p > .05$ ) 두 집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에 대한 증가분은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0.15, p < .001$ ).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23.25( $SD=2.07$ ), 통제집단의 평균은 23.86( $SD=2.27$ )이었으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32.56( $SD=2.01$ ), 통제집단의 평균은 27.97( $SD=2.92$ )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평균이 9.32( $SD=1.43$ )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4.11( $SD=2.15$ )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 표현 활동이 친사회성 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은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 유아 창의성의 모든 하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교육적 상황이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Siebeneicher (201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신체 표현활동을 동반한 음악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한 연구(권미란, 2000; 김미영, 2007; 신영희, 2005), 음악 감상 후 다양한 이야기 꾸미기 및 언어활동을 진행했을 때 창의력이

증진 되었다는 연구(김순정, 2014; 손수연, 2002; 안옥수, 2010), 다양한 신체 표현활동(창의적, 협동적, 소집단 신체 표현 활동 등)을 통한 창의성 증진 효과를 밝힌 선행 연구(김은순, 2001; 김은심, 1995; 오남혜, 2005)들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은 음악속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상상하고 표현하면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은 유아의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 이입 및 조절 등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감상을 활용하여 이야기 짓기 등의 언어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합하였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공요은, 2012)와 같은 맥락이며, 협동적 신체표현활동(이혜경, 2013; 김활란, 2005), 통합적 신체 활동(이용선, 2005), 소집단 동작활동과 신체표현 활동(김미진, 2008; 박경옥, 2007)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와는 유사한 맥락이다. 즉,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을 통해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가 함께 음악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나누며 의견을 공유하여 상상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후속적인 효과 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5개 생활주제와 관련된 음악 23곡에 대해 5가지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음악 감상을 한 후 신체표현활동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선정하여 적합한 스토리텔링 유형을 모색·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스토리텔링 중심의 음악 감상 및 신체표현활동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미라(2008). 아동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미술 감상 지도방안 연구. 경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요은(2012). 음악 감상을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_\_\_\_\_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권미란(2000). 음악 감상 활동에서 신체표현이 유아의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아(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음악 감상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음악적 표현능력, 음악적 태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7). 통합적 음악 감상 활동 유형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2008). 소집단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창의적 신체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배(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신체적 자아 개념과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14). 음악 감상을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4(5), 105-118.
- 김은순(2001). 유아 중심의 동작활동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심 (1995). 통합적 교수방법이 기본동작능력과 창의적 사고 및 신체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아 (2014). 명화감상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중심 예술교육활동의 효과: 유아의 그림감상능력, 창의성,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실 (2001). **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_\_\_\_\_ (2003). 유아기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85-117
- 김재춘, 배지현(2009). 의미 생성 활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22(1) 61-82.
- 김활란(2005) 협동적 동작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옥(2007). 소집단 동작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2004). 소집단 신체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명(2007). 유아 동작교육의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영희(2005). 신체표현과 연계된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혜(2005). 신체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세원(201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이야기 창작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수진(2005). 음악 감상 활동의 통합적 접근이 유아의 감성지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선(2005). 통합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2012). 협동적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7). 창의적 신체표현활동 프로그램이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자영(2005). 통합적 음악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원 (201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 홍지원(1994). 신체활동 중심 교육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llis, G., & Brewster, J.(1991). *The storytelling Handbook: A Guide for Primary Teachers of English*. New York: Penguin Books.
- Haines, B. J. E., & Gerber, L. L.(2000). *Leading Young Children to Music(6rd ed)*. Upper Saddle, New Jersey : Merrill an Imprint of Prentice Hall.
- Mello, R.(2001). The power of storytelling: How oral narrative influences children's relationships in classro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the Arts*, 2(1), 44-65.
- Miller, C. H(2004). *Digital storytelling: A creator's guide to interactive entertainment*. Oxford: Focal Press.
- Mursell, J. L. 저. 한국 음악교재 연구회 역(1992).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Pica, R. 저. 김은심 역(2010). **(출생부터 8세까지) 유아를 위한 동작·음악교육**. 파주: 정민사.
- Siebeneicher-Oliver, S.(2012). *The art of storytelling*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  
제3차-3~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hildren's Song in Teacher's Guide Books for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Focusing on the 3rd-Nuri curriculum at the age range of 3~5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  
제 3차-3~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eaching · Learning Methods of  
Children's Song in Teacher's Guide Books for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Focusing on the 3rd- Nuri curriculum at the age range of 3~5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유치원 교육과정이 변천하면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가 생활주제별로 개발되었으며, 유아의 수준·연령에 적합한 동요를 선정하여 수록되었다. 유아에게 적합한 동요에 관한 책, 동요 음반을 평가하여 동요를 선정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Campbell, 1991). 교사가 음악 활동을 계획할 때 참고하게 되는 다양한 자원 중 하나가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이고(최지원, 2009), 많이 활용된다(김소향·안경숙, 2009).

본 연구는 제 3차-3~5세 누리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박자·음정·음역·조성·형식)과 교수·학습방법(교수·학습매체와 활동전개 방법)을 분석했다. 동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동요 창작 및 유아음악교육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2017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김민정(edumin@naver.com), 홍용희(yonghee@ewha.ac.kr)

## 1.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은 어떠한가?

- 1-1.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박자는 어떠한가?
- 1-2.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정은 어떠한가?
- 1-3.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역은 어떠한가?
- 1-4.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조성은 어떠한가?
- 1-5.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형식은 어떠한가?

## 2.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은 어떠한가?

- 2-1.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매체는 어떠한가?
- 2-2.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전개방법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을 위한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예비연구기간(2012년 8월 8일~2013년 1월 31일)에는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탐색을 위하여 동요작곡가 김진영, 이수인, 신귀복, 김성균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기간에는 동요관련 문헌고찰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2013년 2월 1일~2014년 4월 30일), IRB 승인(2014년 4월 21일)을 받았다.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기간(2014년 5월 7일~2015년 10월 30일)에는 조사한 동요를 음악적 특성(박자, 음정, 음역, 조성, 형식)과 교수·학습방법(교수·학습매체와 활동전개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 III. 연구결과

### 1. 제 3차-3~5세 누리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박자·음정·음역·조성·형식)

- 1) 동요의 박자는 ‘홀박자, 겹박자, 변박자’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서양음악의 홀박자 동요가 전통음악의 겹박자 동요보다 많이 수록되었다. 전통음악 중심의 전래

동요와 국악동요 수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흠박자와 겹박자 동요의 균형감 있는 수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동요의 음정은 흠음정이 겹음정보다 수록이 많았다. 흠음정은 '4도, 5도, 6도, 3도'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겹음정 9도는 제 3차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만 수록되었다. 2007 개정과 3-5세 누리과정에 창작동요가 수록되면서, 음정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음악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음정으로 동요가 창작되어야 한다.
- 3) 동요의 음역은 'c'-c"(8도), c'-d"(9도), c'-a'(6도), d'-d"(8도), d'-e"(9도), d'-b'(6도)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유아의 음역에 무리가 있는 8도와 9도 음역 비중이 높아져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의 활용 시 점검이 필요하다. 유아가 노래 부르기 무리 없는 5도와 6도 동요 수록이 부족했다.
- 4) 동요의 조성은 '다장조, 바장조, 라장조, 사장조, 가단조, 라단조, 마단조' 순으로 많이 수록되었다. 동요의 조성은 장조가 단조보다 수록이 많았다. 밝은 분위기의 장조 동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위기(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등)의 동요를 표현하는 장조와 단조 동요가 창작되어 수록되어야 한다.
- 5) 동요의 형식은 '한 도막, 두 도막, 작은 세 도막, 못갓춘마디, 세 도막, 작은악절'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한 도막과 두 도막 중심의 동요가 많이 수록되었으나, 동요길이의 외적 형식과 더불어 동요구조의 내적 형식 점검이 요구된다.

## 2.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방법(교수·학습매체, 전개방법)

- 1)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매체는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청각매체, 기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악기는 서양악기의 리듬악기 중심으로 수록되었다. 서양악기와 전통악기, 리듬악기와 가락악기의 균형 있는 악기 제시가 요구된다. 3-5세 누리과정은 디지털 매체의 수록이 많았다. 이것은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변화하는 우리의 생활모습과 관계가 있다. 디지털세대인 유아들에게 디지털 매체로 교육하는 것은 생활적응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유아는 감각 교육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아날로그 매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음악교수·학습매체를 통해 동요활동

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활동의 전개방법의 ‘도입’은 ‘사전경험이야기나누기, 노랫말이야기, 주의집중(수수께끼 등)’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전개’는 ‘전체노래지도방법, 전체노래지도방법과 구절법 혼합’ 순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동요활동은 대집단 중심의 전형적인 교수방법 패턴으로 전체노래지도방법이 가장 많았다. 동요활동의 전형적인 교수방법 패턴은 유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반면, ‘지루함’을 줄 수 있다. 동요활동은 대·소집단의 다양한 교수·학습접근이 필요하다. 전개의 ‘통합활동’은 ‘예술활동(신체표현, 미술 등)’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요활동의 통합활동은 음악활동(악기연주, 음악 감상 등)과 교과활동(언어, 과학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결부분의 ‘마무리(평가)’는 제 5차 · 제 6차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는 간과되었다. 점차 2007 개정과 3~5세 누리과정에서 동요활동의 평가 과정이 중요시 되었다. 종결의 평가는 다음 동요활동에 반영되므로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방법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 IV. 제언점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요의 음악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박자, 음정, 음역, 조성, 형식으로 분석한 것으로 리듬형, 노랫말과의 관계 등 다양한 준거로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동요의 형식을 외적인 동요 길이로 분석했으나, 내적인 동요 구조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방법 중 교수·학습매체와 전개방법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동요활동의 교수·학습방법 중 ‘목표’, ‘생활주제’, ‘수준’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나, 유치원에서 활용되는 동요집의 동요 분석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예비연구기간동안 동요작곡가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기간에는 문헌 중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요에 대

한 음악적 특성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요작곡가와  
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고찰과 상호보완적인 동요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제 3차-3~5세 누리과정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  
를 시기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했다. 동요사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동  
요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동요에 대한 역사적 고  
찰 연구를 통해 한국 동요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찰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소향안경숙(2009). 음악교육 내용 영역에 따른 유아교사의 교수방법 실제에 대한 분석. *음악교육 연구*, 36, 29-54.
- 최지원(2009).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용 「유치원 지도서」의 유아 음악 활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mpbell, P. S. (1991). The child-song genre: A comparison of songs by and fo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17(May), 14-23.



1.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의 만 5세반 유아 교사 되어가기  
정미애(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삼숙(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3. 공립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지혜(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4.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지연(인천가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 전화기를 건네고 싶은 민서: 만 1,2세 영아간 공동 주의 연구  
곽경숙(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6. 그림책의 그림읽기 수업을 통한 시각 문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지영(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7.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정화(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8. 교사가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와 개선 방안  
이혜영(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석사)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현조(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변길진(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최규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이현지(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음악교육 실제  
유다이(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박정은(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2. 숲유치원 아이들의 자유놀이 양상과 의미  
이영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한미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남경희(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14.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개발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미숙(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최우영(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5. 어린이집 근무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관계  
김정화(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6.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지식과 효능감과의 관계  
변길희(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윤미(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교사의 만 5세반 유아 교사 되어가기

Becoming a Teacher Who Take Care of Five-year-old Children with an  
Experience of Infant Teacher in Day Care Center

정미애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I. 서론

교사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유아를 담임 맡게 되는 일과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김희태, 2004),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미경, 2007).

본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가 만 5세반 유아반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탐색하고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발견하여 교사가 유아반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가 만 5세반 유아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가 만 5세반 유아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

\*정미애(14sunday@hanmail.net), 김민정(edumin0726@naver.com)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의 K교사(만42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교사는 10년의 영아반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올해 처음 만 5세반 담임이 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 관찰, 교사 면담, 문서 수집과 함께 동영상 촬영, 오디오 녹음, 현장 약기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본을 만들어 범주화해 나가면 분석했다.

## III. 연구결과

K교사에게 첫째, 영아반과 달리 유아반의 교육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활동적인 유아들의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 낯선 유아반 동료 교사에 대한 기대감 및 서운함 등 정서적 불안감을 보였다. 둘째, 영아반에 비해 많은 선택적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유아반에서 순발력 있고 융통성 있게 문제해결 하는 과정을 어려워했다. 셋째, 친숙한 영아반 교사 관계에서 낯선 유아반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및 소통을 어려워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결혼 준비, 고령 임신에 대한 걱정, 업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영아반과 다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담임교사 경험에서 유아와의 관계 형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아들의 문제 상황, 유아반 동료 교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나타났다. 영아반 경력 교사가 유아반 교사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교사의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의미 있는 지원(Schwarzer & Nina, 2007)이 요구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 교사가 만 5세반 유아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발견하여 교사가 유아교사가 만 5세반 유아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반 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고(정혜옥, 이옥형, 2011), 영아반 교사에서 유아반 교사로 전이할 경우, 교사로서의 자신감,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 유아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영아반 교사에서 유아반 교사로 이직하는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영아반 교사가 유아반 교사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로서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교사의 인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기대한다.

##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iterature Activities through Famous Painting Appreciation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Expressive Language Ability

이삼숙(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본 연구는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언어표현력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은 전북 J시에 소재한 S유치원(실험집단)과 J유치원(통제집단)의 2017학년도 만5세 학급 유아 36명이다. 두 유치원은 소도시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누리과정 에 따라 동일한 생활주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일과 운영이 유사하다. 실험집단의 교사는 본 연구자로서 4년제 유아교육전공자이며 교육경력 15년이다. 통제집단 담임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전공자이며 교육경력 20년으로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절차는 검사자 훈련과 예비검사, 사전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

\* samsuk74@naver.com

총 17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은 2주를 기본 단위로 '명화감상-문학 활동-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주 화요일에 명화감상(대집단)을 시작으로 둘째 주 금요일에 평가(대집단)로 마무리 2017년 4월 10일~7월 14일까지 총 14주간 명화를 통한 문학활동을 실험집단에게만 실시했다. 본 연구에 기초한 문학활동은 '명화 감상 유형'과 '문학 활동'은 김은아(2013), 최은실(2014), 임경례(2006)를 근거로 연구자가 고안 한 것이다. 시안 작성 후 유아교육전문 교수 2인과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현장 교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2주간의 예비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명화 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했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했다.

### III. 연구결과

#### 1.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창의성 검사 점수 전체와 하위 영역별 점수에 있어 사전-사후 증가분에 대한 차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유아 창의력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분		t
		M	SD	M	SD	M	SD	
유창성	실험 (n=18)	46.36	8.37	53.37	9.31	7.02	3.38	3.31**
	통제 (n=18)	48.54	4.04	52.55	3.87	4.01	1.85	
융통성	실험 (n=18)	45.81	9.08	49.66	9.25	3.85	1.29	2.88**
	통제 (n=18)	46.00	5.18	48.65	5.78	2.65	1.22	
독창성	실험 (n=18)	51.67	7.75	57.89	8.63	6.26	2.96	5.51***
	통제 (n=18)	48.46	3.75	50.56	3.62	2.10	1.14	
상상력	실험 (n=18)	45.73	6.01	51.70	6.50	5.96	3.34	4.54***
	통제 (n=18)	44.46	4.27	46.51	4.41	2.05	1.51	
유아 창의성 전체	실험 (n=18)	47.39	6.30	53.62	6.88	6.23	1.44	8.98***
	통제 (n=18)	46.78	2.87	49.40	2.84	2.62	.91	

\*\*  $p < .01$ , \*\*\*  $p < .001$

위의 표Ⅲ-1과 같이 유아 창의성 전체 점수에 대한 증가분에 있어 실험집단은 평균 6.23( $SD=1.44$ ) 증가한데 비해 통제집단은 평균 2.62( $SD=.91$ )의 증가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명화 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8.98$ ,  $p < .001$ ).

## 2.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명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표현력 검사 점수 전체와 하위 영역별 점수에 있어 사전-사후 증가분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언어표현력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분		t
		M	SD	M	SD	M	SD	
문장 수	실험 (n=18)	2.78	1.11	4.56	1.61	1.78	1.48	2.98**
	통제 (n=18)	2.89	.90	3.44	.92	.56	.92	
문장 길이	실험 (n=18)	5.08	1.36	6.60	1.24	1.51	.89	2.82**
	통제 (n=18)	5.29	.83	5.72	1.06	.43	1.35	
표현 어휘	실험 (n=18)	.61	.92	1.50	1.15	.89	.75	2.55*
	통제 (n=18)	.56	.78	.78	.73	.22	.80	
언어표현력 전체	실험 (n=18)	8.48	2.51	12.66	3.25	4.17	1.68	4.77***
	통제 (n=18)	8.73	1.30	9.94	1.73	1.21	2.03	
유아 창의성 전체	실험 (n=18)	47.39	6.30	53.62	6.88	6.23	1.44	8.98***
	통제 (n=18)	46.78	2.87	49.40	2.84	2.62	.91	

\* $p < .05$ , \*\* $p < .01$ , \*\*\* $p < .001$

위의 표Ⅲ-2와 같이 언어표현력 전체 점수에 대한 증가분에 있어 실험집단은 평균 4.17( $SD=1.68$ ) 증가한데 비해 통제집단은 평균 1.21( $SD=2.03$ )의 증가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명화 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4.77,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영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 창의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동화 만들기, 영화를 재구성하여 나만의 새로운 영화 만들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표현하기 등의 문학적인 요소와 연계하여 유아의 창의성 발달의 증진 효과를 보고한 최혜원(2013)의 연구와 영화감상과 연계된 신체적 확장활동인 ‘동작화’ 즉, 영화 속에 나온 등장인물이나 사물이 되어 신체표현하기, 역할극하기 등의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장혜진(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은 유아의 문장 수, 문장 길이, 표현 어휘 수 등 언어표현력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 감상을 통한 확장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진혜진(201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진혜진(2011)은 영화감상과 연계된 확장 활동을 한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는 있으나, 영화 감상 지도 방법으로 분석, 해석의 수단을 사용하여 유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확장활동으로 이야기꾸미기, 동극활동 등의 문학 활동이 포함된 확장활동을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의 영화감상을 통한 문학 활동과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같은 맥락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공립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

### Teacher's Perceptions of Mixed-Age Classes in Public Kindergartens

이지혜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현상의 영향으로 외동아 또는 형제 수가 적은 유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은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회화 과정을 교육목표로서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 중 유아들에게 있어 중적·횡적 인간관계의 경험을 넓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 연령층을 함께 교육하는 혼합연령 학급구성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혼합연령 학급구성이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혼합연령학급이 단일연령학급에 비해 더 많은 이점이 있음을 알아냈고, 이러한 집단구성을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김명숙, 2007).

혼합연령(복식) 학급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는 혼합연령 집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혼합연령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려나가지 못함으로써 혼합연령 학급운영에 대한 특수성과 통합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 연령 간 통합적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린 활동을 하기 일쑤였다(박현주, 1998).

혼합연령학급은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력이 부족하거나 혼합연령학급의 특성에 대

\* 본 논문은 2016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suni3309@naver.com

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학급 형태이다. 이처럼 교사의 인식은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실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혼합연령 학급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혼합연령 학급구성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2. 혼합연령 학급의 일과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혼합연령 학급구성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시에 위치한 공립 유치원 중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 204명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다혜(2008), 박현주(1998), 어은정(1995)의 질문지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수정, 고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3. 연구 절차

2015년 11월 18일~11월 22일까지 1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2015년 12월 2일~2016년 1월 13일 까지 2주에 걸쳐 메일과 우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5점 척도의 경우 1~5점 배점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배경변인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이나  $F$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혼합연령 학급구성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 인식

혼합연령 학급구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별 발달 수준의 차이로 수업준비가 어렵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 2. 혼합연령 학급의 일과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혼합연령 학급에서 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활동유형에 대해 교사들은 ‘이야기 나누기’를 가장 어렵다고 인식했고, 다음으로 ‘조형’활동을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함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가장 많은 교사가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3. 혼합연령 학급구성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혼합연령 집단에서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교사들은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언어발달의 증진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유아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나이 어린 유아들은 나이 많은 유아들에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나이 많은 유아들은 나이 어린 유아들에게 활동을 방해받는 것을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혼합연령 학급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이야기나누기’를 혼합연령학급에서 활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활동 유형으로 인식하였고, 혼합연령 학급운영 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르는 것이었다.

셋째, 혼합연령 학급을 통해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나이 많은 유아에게 의존하려는 것과, 나이어린 유아에게 활동을 방해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mpathy Educat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ing Thinking Ability

우지연 (인천가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M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만 5세 28명(실험집단)과 W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만 5세 28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1997)가 개발한 도구를 이병래(1997)가 수정, 번안한 정서지능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배려적 사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kidis@ginue.ac.kr

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Lipman(2003)이 제시한 배려적 사고의 유형별 특성을 근거로 이춘희(2008)가 구안한 관찰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의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검사에 대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교육활동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 능력, 자기조절 능력, 타인인식 능력, 타인조절 능력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공감교육활동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배려적 사고 능력 전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배려적 사고능력 하위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규범적 사고, 정서적 사고, 행동적 사고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치부여적 사고, 감정이입적 사고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끼침을 시사한다.

## 전화기를 건네고 싶은 민서: 만 1~2세 영아 간 공동 주의 연구

Minseo picks up the phone and hands over it to the friend:  
Joint-attention among 1, 2-year-old infants

곽경숙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정가운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I. 서론

본 연구는 만 1, 2세 영아의 일과시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영아-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영아들의 타인에 대한 인식과 공유의 능력인 공동주의 행동을 탐색하여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제 중의 하나인 공동주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아의 바람직한 사회적 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영아들이 사회적 관계능력을 형성하며 자라나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영아 간 공동주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영아 간 공동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아의 공동주의 탐구'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K어린이집의 만 1~2세 영아반에서 2014년 1학기(4월~5월) 동안 연구를 시작하였다. 만 1~2세 혼합 연령인 짝총반은 영아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연령적 질서와 그에 따른 공동주의의 특수한 규칙이 존재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짝총반은 1명의 담임교사(29

---

\* ksgwak11@hanmail.net

세, 경력 4년차 박00 선생님), 7명의 남녀 영아들(만 1세 3명, 만2세 4명)로 구성되었다. 영아-영아 간 공동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 대상 담임교사와 사전 면담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영아나 교사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Baron-cohen(1995)의 공동주의를 발달시키기 위한 능력 즉 응시하기, 가리키기, 주기, 보여주기와 Bakemam & Adamson(1984, 1998)의 협응적 공동주의와 지지적 공동주의를 영아의 일과 중에 나타나는 공동주의 양상을 관찰하여 연구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자는 관찰 일과 시간을 정하여 K어린이집의 일상생활 활동 시간에 참여하여 관찰 및 녹화하였다. 2014년 4월 7일~5월 12일의 7주간 매일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참여 관찰과 비디오 녹화를 병행한 후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관찰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담임교사와 비형식적 면담을 통해 영아들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교사의 말하기’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였다. 교사와 수시로 이야기 나누며 연구자의 관찰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교사와의 면담 내용 또한 전사하였다. 관찰을 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참여가 영아들의 놀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러운 주의를 기울였으며 관찰 기간 동안 현장노트와 녹화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일지, 현장일지, 면담일지 등을 작성하였다. 현장노트에는 관찰날짜, 장소, 시간, 관찰상황, 관찰내용 및 연구자의 생각 및 질문을 기록하였다. 최종 전사본은 참여 교사와 함께 검토한 후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자료의 분석은 Bakemam & Adamson의 체계를 사용하여 영아-영아 간 일상생활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공동주의 상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Bakemam & Adamson(1998). 공동주의 분석 범주로는 Baron-cohen(1995)이 공동주의 행동유형으로 분류한 응시하기, 가리키기, 주기, 보여주기 등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영아의 행동적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중요하게 간주되는 몸짓을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기초로 분류한 후 재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과시간에 나타난 영아-영아 간 공동주의

일과 중에 관찰된 영아들의 ‘응시하기’는 또래의 모습이나 놀이의 모방이며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주의 행동으로 대상이나 사물에 따라 충분히 공감하며 강요가 아닌 형태로 영아들의 호기심에 바탕을 둔다.

(윤서가 싸이 난 무씨를 보고 있다. 예준이도 윤서 옆에 서서 무씨를 본다)

교사: 씨앗을 여기 숨에다 뿌리고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싸이 났네요.

(영아들이 계속 씨앗을 보고 있다)

교사: 우리 내일 흙에 심기로 해요.

(2014. 04. 21 참여관찰일지)

영아들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특수한 형태의 대화 방식인 ‘응시하기’는 대화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내용의 면에서 그전의 경험에서 터득한 맥락의 단서를 찾으려 표현한다. 영아 집단에서 공유되는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일 것이며 나아가 또래 집단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식이다. ‘가리키기’는 교사의 시각으로 보면 영아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매우 흥미롭고 놀랍다. 표현이라기 보다는 서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서로 재미있게 놀이하기 위함이다. 신기한 사물을 발견하면 또래와 공유하며 만들어 내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 말하자면 또래의 행동, 의도, 목적을 이해하는 ‘사회 언어적’ 능력의 한 모습이다.

세영: 여기봐봐. 많아(세영이가 제비꽃을 가리키며 외친다)

윤서가 세영이 옆에 서서 제비꽃을 본다.

2014 .04. 23 참여관찰일지

## 2. 영아-영아 간 공동주의에서 교사의 역할

영아의 발달에서 부모, 교사와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 학급에서 만나게 되는 또래가 있다. 영아는 또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게 되는데 만 1,2세 영아들은 형제관계 만큼이나 빈번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솔직한 정서의 표현, 서로 간의 관심으로 서로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사는 이런 영아 간의 공동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개입하여 영아들의 ‘사회적 놀이’가 바람직하게 발달 되도록 지지해 준다.

윤서가 민서, 예준, 예원이가 하는 블록놀이를 보고 있다.

교사: 윤서야~ 함께 놀자(윤서가 놀이에 합류한다). 윤서도 블록 나눠주자(예원이가 블록을 나눠준다).

교사: 아이 착해... 윤서야 예원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자.

윤서: 고마워...

교사: 윤서 잘 했어요.

2014. 04. 07 참여관찰일지

담임교사는 ‘배려’ 또는 ‘양보’의 미덕을 영아들에게 요구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윤서가 껌씹기 놀이를 하고 있다. 민서가 윤서의 놀이를 보고 있다)

(놀잇감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워서 윤서 책상 위에 올려 준다.)

교사: 민서야. 윤서가 떨어뜨렸어요?

민서: 네(교사가 민서에게 미소를 보낸다)

2014 .04 .07 참여관찰일지

담임교사는 혼합 연령 학급을 운영하면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한 살 많은 형님(민서)이 동생(윤서)에게 배려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실천은 영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또래 관계에서 또래와 또래가 눈 맞추기를 하며 영아 간의 공동주의가 발달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영아들은 생애 초기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공동주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또래가 놀이에 끼려고 할 때에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교사는 놀이 집단 내부에 참여하기를 시도 한다. “쥐가 한 마리 쥐가 두 마리...” 만 4세가 노래와 율동을 하면 만 3세들은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이러한 공동주의는 ‘배타성’과 ‘결속’을 동시에 가진다. 특별한 영아들의 문화적 이해와 인식의 범위를 형성하는 동질감을 전제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영아들은 일상 속에서 진화하고 공동주의 현상 속에서 부단히 발달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가 속한 특별한 가치와 신념이 자라고 있음을 인식해본다.

## 그림책의 그림읽기 수업을 통한 시각 문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Improving Children's Visual Literacy through Reading Pictures in Picture Books\*

김지영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 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의 그림읽기(Picture Reading)\*\*\*를 통해 그림의 상징적 이야기를 파악하고, 나아가 시각 문식성(Visual Literacy)\*\*\*\* 향상을 기하는 교수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한 후, 아동이 그림책 감상을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는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림책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림책 매체를 감상하는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문제

1. 만 6세 아동에게 그림책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읽혀지는가?
2. 그림책의 그림읽기를 통해 만 6세 아동의 시각 문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 본 논문은 김지영의 2006년도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독서지도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lomi0717@hanmail.net

\*\*\* 그림책의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의미를 읽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림의 의미를 주목하여 읽는 방법이다.

\*\*\*\* 시각 문식성(Visual Literacy)이란 시각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그런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학습된 능력과 이미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이미지 자체를 생각하고 배우고 표현하려는 능력을 포함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각 문식성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을 10차시로 제시하고 각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는 질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주도적 반응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관찰한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과 차시별로 선택한 그림책의 특징에 따라 수업 마무리활동지의 결과물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학생들의 변화 양상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그림책의 올바른 읽기 방법 독려와 나아가 시각 문식성 향상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총 10차시 수업은 ‘생각열기 → 생각나누기 → 생각모으기’ 3단계로 진행하였다. ‘생각열기’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예측하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한 확산적 질문을 많이 제시하여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였다. ‘생각나누기’에서는 정확한 내용 확인보다 심미적 질문(Aesthetic Question)\*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그림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이야기를 찾으며 읽어 나가도록 그림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상호보완하며 읽어나가는 학생들의 변화를 기술하여 학생들의 변화된 반응 양상을 통해 그림읽기의 태도와 능력 향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그림읽기의 수업이 시각 문식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도 수업 내용을 녹음 후 전사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IV. 연구결과

첫째, 그림책 텍스트를 읽기 위한 전략으로 글과 그림을 상호 보완하여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읽기를 위한 교사의 질문은 학습자에게 그림의 상징적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게 하였다. 학습자들은 글과 그림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림책 텍스트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재구성하며 읽어냈으며, 그림이란 시각적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 문식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확산적 질문을 통한 교수 방법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 향

---

\* 심미적 질문은 동화 속의 등장인물 및 사건의 의미에 대해 감정, 느낌, 추론, 예측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적인 경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상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였다.

셋째, 총체적언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독자반응 중심의 수업 진행은 학습자의 말하기(발표력 신장), 읽기(그림읽기(picture reading), 쓰기(글쓰기) 능력의 신장을 가져왔다. 발표하기가 두렵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글쓰기를 못 하겠다고 말하던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발전 모습을 활동지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넷째, 학습자들에게 독서 태도와 흥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책 읽기가 재미없다고 말했던 학습자들은 본 수업에 매우 흥미로워 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본 수업 내용과 같은 수업을 지속적으로하기를 원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의 그림읽기를 통한 그림책 수업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아동의 시각 문식성 향상에 목적이 있었다. 목적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은 미흡하나마 시각 문식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섯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수업 방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차시 수업 진행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 기술하여 연구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장기적인 수업 진행과 그림책을 주제별 접근 방법이나 비슷한 내용이나 비슷한 그림 형식을 갖고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비교 감상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성인(부모,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림책에 대한 생각과 그림책을 읽는 새로운 시각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 Visiting Resource Recycling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박정화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

한희경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유아기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 및 각 사회단체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정부 및 각 사회단체에서 유아기의 환경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환경문제의 시급함이 쟁점이며, 자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산림파괴, 쓰레기 처리를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의 부족, 지구 환경의 황폐화가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면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유아기의 자원재활용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를 통해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기준을 제시하며 유아기에서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를 8개로 분류하였고 이에 4, 5세에서 폐기물 문제와 자원 순환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한다고 하였다(환경부, 2014).

유아기부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자원재활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me2000c@hanmail.net

및 중요성을 알고, 자원재활용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자체의 요구와 자원재활용 교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고, 청주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2회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참고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을 시행하였고, 질문지를 통한 평가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을 수정·보완 하여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III. 연구결과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심화된 환경교육을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총 4회의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청주시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면담을 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017년 3월 20일~4월 30일의 기간 동안 청주시의 유아교육기관 20학급에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을 진행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여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목표 75%, 내용 75%, 교수방법 75%, 평가방법 55%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평가방법과 운영에 관해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최종 개발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쓰레기 문제와 자원 순환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이며, 교육내용은 1차 쓰레기와 환경오염, 2차 재활용과 분리수거, 3차 음식물 쓰레기, 4차 아나바다 시장놀이이다. 교수·학습은 도입(인사하기, 회상하기) → 전개(세부 활동 진행하기) → 마무리(활동 평가하기) → 가정연계의 4단계로 진행이 되며 교육의 활동유형은 이야기 나누기, 게임, 미술, 역할놀이로 선정하였다. 교육평가에서는 활동이 끝난 후, 활동 목적 및 목표, 내용이 드러난 활동지를 통해 아이들의 수행정도를 알아보았다.

#### IV. 논의 및 결론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인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이 부족, 자원재활용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의 요구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안)이 구성되어 시행·보완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운영방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받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는 찾아가는 교육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서 수요자가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지만 교육을 진행하기에 주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협소한 공간으로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교육 강사의 특성이 달라 수업의 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주시의 각 지역구에 따라 담당 강사가 해당 구역의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원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교육을 하는 강사의 특성에 따라 수업이 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가정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활동이 다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이나 교육 강사의 특성에 따라 가정과 연계가 협조적일 수도 있고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

자원재활용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가 모두 협력하여 자원재활용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자원재활용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과 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환경 안에서 사회, 경제의 발전이 모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가 협력하여 자원재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교사가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와 개선 방안\*

### Teachers' Experiences of and Requests for Parental Involvement in Open Childcare Centers

이혜영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

배지희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를 살펴보고,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어린이집의 부모참여는 교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셋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 본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bestyoung77@hanmail.net

본 연구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3명, 민간 어린이집 교사 3명, 가정 어린이집 교사 3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참여하였다.

## 2. 연구 절차

면담 내용과 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교사 2명을 대상으로 각 1회씩 면담을 진행하면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미리 준비된 반구조화 된 질문들을 사용하였고, 면담이 진행되면서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이루어졌다. 교사 9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교사 1인당 3회씩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총 27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의 소요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였다. 참여관찰은 국공립어린이집 1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2016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관찰하였다. 주제와 활동에 따른 참여관찰 시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회당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매월 진행되는 부모 급식 모니터링(9회)과 부모 도우미 활동(9회)을 관찰하였고, 이 외에도 부모 간담회, 오리엔테이션, 부모참여 활동, 학부모 상담 등을 포함하여 총 27회의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관찰하였다.

##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 과정에서 Bogdan과 Biklen(1982)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면담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련 단어들을 유목화하고, 관련 사례들을 주제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패턴을 찾고, 개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관찰, 면담, 문서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검증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 1인에게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는 교사와 부모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교사들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준비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린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교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영유아들의 일상적인 행동의 틀이 깨져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영유아 행동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율적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자료가 미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의 실제에 관한 교사교육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로 인한 과중한 교사의 업무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가 교사와 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인식하였다.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는 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유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게 되어 문제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둘째, 교사들은 부모참여로 인하여 추가되는 과중한 업무, 부모가 방문할 때 영유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등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저조한 참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효율적인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운영을 위해 교사들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실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포스터 발표 9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sonal Variables, Teaching ethics and Teaching Personality  
on the Teaching Profession among Childcare Teachers\*

전홍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권현조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변길진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최규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들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과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의 제고와 향후 보육교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예비교사양성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은 개인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은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본 논문은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hjun@sungshin.ac.kr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79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양경혜(2012)가 제작한 교직윤리의식척도와 김경령과 서은희(2014)가 개발한 교직인성 자기점검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지연(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하였다. 질문지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이 아니며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4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교직전문성의 차이는 살펴본 결과, 교직전문성의 하위요인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요구 인식에서는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공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교사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과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직전문성은 교직윤리의식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 전문성은 교직인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상관이 높은 하위요인으로는 교직인성 중 소명의식이었으며, 교직전문성 하위요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직전문성의 하위영역인 전문적 지식과 기술요구 인식은 개인변인 중 경력, 교직인성 중 보편적 인성의 도덕성, 교직인성 중 소명의식, 학생

에 대한 열정의 독립변수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다. 교직전문성 중 보육의 중요성 인식은 교직윤리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 교직인성 중 교육적 신념, 소명의식, 보편적 인성의 도덕성과 개인변인인 학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직전문성 중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교직인성 중 소명의식, 교육적 신념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전문성 중 전문직 수행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교직인성 중 학생에 대한 열정, 소명의식, 교육적 신념과 교직윤리의식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과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변인에 따른 교직전문성의 차이에서 경력과 학력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교직전문성을 시간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교직인성은 교직전문성과 대부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인성과 교직전문성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교직인성과 교직전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직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직인성 중 소명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전문성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교직인성의 하위영역인 소명의식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전문성 수준에 교사의 소명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Child Abuse Newspaper:  
Investigating the Discourses on Childcare Center Teachers

이현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정혜옥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I. 서론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기사를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그 외의 것은 소외시킴으로써 전략적, 집중적으로 특정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한다(정혜옥, 이지영, 2016). 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둘러싼 신문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가 보육교사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

\*hwchung@ewha.ac.kr

Discourse Analysis: CDA)이란 담론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찾아 권력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를 담은 이론이자 연구방법이다(Fairclough, 2015). 연구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문기사 중 총 372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

첫째, 전문가 담론에서는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가 개선되어 전문성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전문가 담론이 형성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성과 보살핌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사의 인성을 중요시하는 양육자 담론, 셋째, 보육교사를 언제든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보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범죄자 담론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해결사 담론이 형성되었다.

####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의 사회·문화적 배경

첫째, 보육교사의 담론에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이 보육의 질 저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국가의 책임과 같은 맥락에서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공공의 책임으로서의 아동학대가 강조되었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감시체계가 확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네 가지 보육교사 담론들에서는 서로 논쟁적·대화적 관계를 가지고 담론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야한다는 인식과, 공공의 책임으로서의 아동학대라는 인식, 아동학대 예방책으로서의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육교사 담론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주는 의미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음악교육 실제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Teaching Efficacy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유다이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정은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유아음악교육에서 적절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교육에서의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전라북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음악교육 실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의 차이에 따라 음악교육 환경의 실제는 어떠한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의 차이에 따라 음악교육 활동 지도의 실제는 어떠한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내의 3개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각 150명씩 총 300명이다.

---

\* dlxlxl@naver.com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학력·재직기관·교사경력에 따른 음악교수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 검사도구인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조형숙(1998)이 번안하고 방은영과 박찬옥(2005)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MTEBI(Music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교사의 음악교육 실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미용(2002)과 고경나(2008)를 근거로 연구자가 고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시안을 작성한 후 유아음악교육을 강의하는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빈도(%)와 평균(*SD*)을 산출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X^2$ 검증이나 *t*-검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응답의 경우 다중응답처리를 한다. 음악교수 효능감에 따라 음악교육 실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악교수 효능감 점수결과를 기초로 음악교수 효능감 상집단 20%, 음악교수 효능감 하집단 20%를 선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차이에 따른 음악교육 환경의 실재를 알아본 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보유 악기의 수, 교실 내 음률영역 높이 참여정도, 악기 관련 자료 변환 주기와 악기장 배치의 유아 접근성 용이성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차이에 따른 음악교육 활동 지도의 실재를 알아본 결과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교육활동의 목표, 음악교육 활동의 내용 선정 시 고려사항, 유아음악 활동지도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수매체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음악교육 활동별 교육활동지도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악교육 활동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풍부한 음악환경 제공을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실 내 음률영역을 하나의 독립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집단이 보유악기의 수, 악기관련 자료의 변환주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육부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의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상집단은 '생활주제'를 고려하였고 하집단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였다.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음악교육 활동의 횟수는 '주 1~2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하집단은 음악교육 활동지도 시 '교사의 자신감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숲유치원 아이들의 자유놀이 양상과 의미\*

Aspects and meaning of free play for children enrolled in forest kindergarten

이영림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한미라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자연이 교육의 원천'이라는 교육 원리를 깨닫고 자연의 특성이 그대로 있는 숲에서 유아기부터 숲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유아기는 주변 환경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유아들에게 자연 안에서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의 기회를 자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Wilson,1994).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를 펼치고 구성하는 가운데 내적 감성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놀이에 친구들이 합류하고, 놀이가 확장되면서 사회성이나 창의력, 언어 능력 등이 발달될 수 있다(장희정·박인기, 2014). 그러므로 숲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숲해설가에 의한 활동이 아닌 유아교사와 함께 하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매일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숲에서 생활하는 숲반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노는 다양한 놀이모습을 알아봄으로써 숲유치원 아이들의 자유놀이 양상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증가추세에 있는 숲반에

\* 본 논문은 2017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smdk1227@hanmail.net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에게 적합한 형태의 숲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숲유치원 아이들의 자유놀이 양상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현장

본 연구 기관은 경상남도 C시에 위치한 K유치원으로 생태유아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해오고 있다. 이 기관의 숲반은 다섯 개의 팀으로 한 팀당 교사 1명과 유아 17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여 오후 4시까지 숲에서 놀이한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숲반 솔방울팀의 유아 만 3세 4명, 만 4세 9명, 만 5세 4명을 참여관찰하였다.

## 3. 연구 절차

2016년 6월 24일과 6월 28일 2회에 걸쳐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본 연구는 2016년 7월 첫 주 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20주에 걸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 4. 자료 수집

관찰 자료는 모두 동영상 촬영하여 전사하였고, 관찰 도중 유아들의 말이나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숲반의 연간교육계획안, 하루일과표, 일일활동기

록지, 교사저널 등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연구자료 분석을 위해 관찰 전사자료, 면담자료, 문서자료 등을 분류 및 조직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의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찰을 하였다. 참여관찰, 면담, 연구자 일지, 교사저널, 문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삼각검증의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의 조언과 지적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온몸으로 놀아요. : 몸으로 배우는 삶

숲유치원 아이들은 온몸으로 놀면서 세상과 접촉하였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달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갔다. 아이들은 숲의 다양한 현상을 모든 감각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으로 진정한 삶을 만들어갔다.

### 2. 모두 함께 해요. : 삶으로 배우는 삶

숲유치원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지내는 삶 속에서 배워 나갔다. 아이들은 숲에서 친구와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발적인 놀이규칙으로 갈등을 줄였다. 다양한 문제 상황이 연출되는 숲에서 아이들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였다. 아이들은 숲이라는 교실에서 삶으로 배우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

### 3. 우리가 만들어요. : 자연에서 창조하는 삶

숲유치원 아이들은 모든 자연물을 자신의 놀잇감으로 만들며 자연에서 창조하는 삶을 살았다. 숲에서 찾은 비구조화된 놀잇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놀이를 재창조할 수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사고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만든다.

#### 4. 자연을 느껴요. : 자연과 교감하는 삶

숲유치원 아이들은 숲에서 반복적으로 놀이하며 자연 속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숲에서의 자유로운 놀이는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였다.

둘째, 숲에서 놀이하며 아이들은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매일 오랜 시간 놀이하러 숲의 공간은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삶의 현장이었다.

넷째, 숲에서는 아이들의 몰입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놀이가 이루어졌다.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Media Mediation on Young Children's Smartphone Overuse

남경희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I. 서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행동 및 적절한 미디어 중재역할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미디어 중재역할,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 대전, 세종 지역의 유치원 5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101명과 어린이집 8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137명의 어머니 총 238명이다.

---

\*nkhpig@hanmail.net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척도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한국형 유아동(만 5~9세)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를 이현진(2015)이 스마트폰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개 하위요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2000)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정윤(2008)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의 4개 하위요인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역할 척도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Nathanson(1998)의 척도를 번안하여 서재희(1998)가 사용한 도구를 양효현(2005)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박선영(2013)이 스마트기기에 맞게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박라진(2016)이 부모가 측정하도록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중재, 부정적 중재, 방임의 3개 하위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미디어 중재 역할,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

온정·격려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정도가 낮고,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정도가 높았다. 부정적 중재를 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낮았고, 방임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도 정도가 높았다.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가 높을수록 긍정적 중재와 부정적 중재를 많이 하며, 한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 중재와 부정적 중재 모

두 높아지고 방임은 낮아졌다. 과보호·허용이 높을수록 부정적 중재는 낮아지고, 방임은 높아졌으며, 거부·방임이 높을수록 긍정적 중재가 낮아졌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 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유아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설명력은 25%였으며, 한계설정은 부적 영향, 과보호·허용과 거부·방임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역할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은 13%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8%였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과 거부·방임과 미디어 중재 중 긍정적 중재와 방임이었다. 이들 변인 모두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중 방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미디어 중재 역할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스마트폰 보다는 신체를 이용한 놀이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아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온정·격려와 한계설정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고, 미디어 중재 역할에 있어서 방임을 해서는 안 되며, 아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이 미숙한 유아인 만큼 긍정적 중재 보다는 어머니의 제한적 중재인 부정적 중재 역할이 더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디어 중재역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유아의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개발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Charac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Won-Buddism Education.

최미숙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최우영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I. 이끄는 말

한국유아교육 100년사를 통하여 볼 때 원불교유아교육은 ‘원광’이라는 이름으로 60여년간 한국유아교육과 함께하면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받으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원불교유아교육은 그동안의 유아인성교육을 토대로 원불교 유아인성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하고 검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원불교 유아교사연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교수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자료와 원불교 유아교육협의회인 천심회 문헌자료를 근거로 연구동향 및 원불교유아교육기관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시대별로 교사연수 및 원장연수에 대한 교육내용 분석 및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교수자료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하고, 셋째,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czy12@won.or.kr

## II. 원불교 유아인성교육 현황 및 연구 동향

### 1. 원불교유아교사 교육현황

원불교 유아교육의 특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불교 마음공부’를 통하여 원불교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 2.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교수자료 연구개발 현황

원불교유아교육은 ‘원불교 마음공부’의 보편화를 시도하여, ‘훌륭한마음씨 키우기’ 등으로 ‘원불교 마음공부’ 접근의 용이성과 수용의 보편성을 가져와 학부모와 원불교 유아교육기관 유아교사, 원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원불교 유아인성교육이 대중화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3. 원불교 유아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소태산의 유아교육관을 시작으로 최근 2016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주로 원불교 유아교육관, 원불교 마음공부활동 및 인성교육 현황과 실태, 원불교 유아교육의 발전과정 등에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III. 유아인성교육 시행 현황 및 교수자료 분석

### 1. 원불교 유아교육기관 유아인성교육 시행 현황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원불교 유아교육의 이념실현을 위하여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설립하면서부터 ‘마음공부(인성교육)’를 시행하고 있다.

### 2. 원불교 유아교육기관 유아인성교육 교수자료 분석

불교 유아교육의 가장 큰 특성인 ‘원불교 마음공부(인성교육)’을 위하여, 『훌륭한 마음공부·훌륭한 마음씨 키우기』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 IV. 원불교 유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다음 3가지로 원불교 유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 온라인시스템 구축 방안과 둘째, 체험 및 실습위주의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방안과 셋째, 유아-교사-부모간의 인성교육 공조학습 체제 구축 방안이다.

##### 1. 유아인성교육 온라인시스템 구축 방안

현재 원광유아 다음카페로는 천심회에서 수시로 연구 개발 보급된 교수자료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다음카페형식은 게시 및 광고 형태의 일방적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방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수시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성 집중 교육에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아인성교육 온라인 시스템을 분리하여 교육을 목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2. 체험 및 실습위주의 유아인성교육콘텐츠 개발방안

현재 개발 제작된 교수자료중 현장에서 가장 활동도가 높은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체험 및 실습 위주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훌륭한 마음공부 활동북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각 연령별 수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아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맞춤형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 3. 유아-교사-부모간 인성교육 공조체제 구축방안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활동을 유아-교사-부모간 인성교육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상호협조와 협력을 기본으로 한 유아인성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V. 맺는 말

원불교 유아교육은 마음공부가 근본임을 자각하여 ‘원만인의 육성’을 실현시키고자 도학교육과 과학교육을 아울러 병행하는 원만한 교육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교수자료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교육자료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행 현황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원불교 유아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고 이를 서로 공유하여 전 세계에 유아인성교육의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 어린이집 근무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관계

###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Daily Stress in Daycare Teachers

김정화(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어린이집 근무환경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각각의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 교사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일상생활과 직무환경에서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근무환경에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보육교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46%), 법인(1.5%), 민간(16.4%), 가정(29.2%),

---

\* jeongwhak@hanmail.net

직장어린이집(6.9%) 등 다양한 유형이었다.

연구방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혜영(2004)가 제작하고 김지은(2010)이 수정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27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Cohen, Kramrach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PS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 개 문항으로 각각 1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 및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 및 Pearson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 III. 연구결과

#### 1.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는 2.65점( $SD=.60$ )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원장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2.38점( $SD=.68$ ), 업무 과부하는 3.33점( $SD=.70$ ), 동료와의 관계는 2.16점( $SD=.68$ ), 학부모와의 관계는 2.74점( $SD=.60$ )로 업무과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보육교사의 일상적 스트레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2.54점( $SD=.57$ )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단일문항으로 하위요인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일상적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31, p < .01$ ). 직무스트레스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검증한 결과  $F=32.66(p < .001)$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1%이다. 직무스트레스

의 하위요인인 원장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업무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각각에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보육교사는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느낀다. 보육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특히 업무의 과부하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나 동료 등의 관계,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의 부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보육교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에서의 행복이 가정에서의 행복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직장경험은 직장 밖에서 하는 행동 및 일 등에 영향을 준다.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의 느낌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이된다. 그런데 유쾌한 전이보다는 부정적인 전이의 가능성이 더 크므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보육교사가 생활하는 가정이나 친구관계 등 다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지식과 효능감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in Music Education

변길희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윤미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유아의 음악적 능력은 음악적 환경과 교육방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환경의 제공과 적절한 교육방법의 적용은 유아의 음악적 능력 신장에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유아의 음악능력 증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Chen, 2000)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받는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교사의 교수내용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선희, 2008).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은 음악교과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방법을 포함한 지식이다. 또한 교사 자신이 유아의 음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음악교수에 대한 효능감의 정도는 유아의 음악적 능력신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논문은 2017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변길희(kilheelove@daum.net)

박윤미(julie152535@naver.com)

심성경(ssky@wku.ac.kr)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전라북도 J, I, K시와 D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담임교사 231명이다.

### 2. 연구도구

유지영(2014)의 '유아음악교수 내용지식 측정척도'와 Riggs와 Enochs(1990)를 기초로 방은영과 박찬옥(2005)이 재구성한 음악교수 효능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 3. 연구절차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인편과 우편을 통해 음악교수 내용지식 척도와 음악교수 효능감 척도를 배포·수거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수 내용지식				음악교수 효능감	
교육과정 지식 M(SD)	교과내용 지식 M(SD)	교수학습 방법지식 M(SD)	학습자에 대한 지식 M(SD)	결과에 대한 기대감 M(SD)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 M(SD)
3.11(.35)	2.76(.54)	3.07(.38)	2.77(.55)	3.58(.49)	3.32(.47)
2.93(.38)				3.45(.41)	

## 2.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효능감과의 관계

하위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교육과정지식①								
음악 교수 내용 지식	교과내용지식②	.50**						
	교수·학습방법 지식③	.69**	.62**					
	학습자에 대한 지식④	.45**	.60**	.58**				
음악교수내용지식 전체⑤								
음악 교수 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감⑥	.29**	.35**	.37**	.23**	.37**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⑦	.53**	.58**	.58**	.46**	.65**	.47**	
	음악교수 효능감 전체⑧	.47**	.54**	.55**	.40**	.59**	.86**	.85**

## IV. 논의 및 결론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과 효능감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음악교수 내용지식 전체와 음악교수 효능감 전체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주연과 이민정(2015)의 연구에서 음악 교육활동에 대한 지식이 높은 교사가 음악교수 효능감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즉, 교사의 지식 수준이 교수 효능감의 중요한 변인이 되며(Czerniak & Shriver, 1994), 지식은 효능감과 정적상관을 갖는 변인(박성혜, 2003)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음악교수 내용지식 전체와 효능감의 하위요인 간에는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음악교수 내용지식이 높을수록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큼을 시사한다.

음악교수 효능감 전체와 음악교수 내용지식의 하위요인 간에는 교수학습방법지식,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학교수 효능감에 교수학습방법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은(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학습자에 대한 지식보다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매체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 제2조(목적)

본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제 3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 4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 제 5 장 총 회

###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의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 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 ①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 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2. 논문투고 및 발행 시기

논문	1호	2호	3호	4호
투고마감일	11월 15일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발간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3. 논문 투고 규정

- 1) 논문 투고는 한국육아지원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온라인논문투고: <http://submit.dbpia.co.kr/>
- 2) 논문 투고시 투고 논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재단의 KCI 유사도 검증을 수행한 후 결과를 육아지원연구 투고서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연구투고서는 논문명과 모든 저자의 소속, 연락처(모든 저자의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한다.
- 3) 투고 논문은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4) 석·박사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다.
- 5) 논문 투고 시 모든 투고자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문의: 학회 총무부 [ksecec@hanmail.net](mailto:ksecec@hanmail.net))

회비납부: 회비 3만원 가입비 1만원

신한은행 100-031-260431     사단법인 한국육아지원학회(총무부)

심사비 납부: 심사비 10만원

하나은행 519-910002-35505     사단법인 한국육아지원학회(편집부)

- 5)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 논문 접수 안내’ 알림 메일이 투고자에게 발송된다.
- 6) 논문접수 관련 문의는 편집위원회 메일([ksecec2@hanmail.net](mailto:ksecec2@hanmail.net))을 이용한다.

#### 4. 논문작성

- 1) 투고논문은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육아지원연구 논문작성파일 2017 참조)
- 2) 논문 본문에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3)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논문 영문제목, 주제어(국문, 영문/ 2-4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주제어: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4) 논문의 분량은 육아지원연구 편집양식에 따라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30쪽 내외로 한다.

#### 5. 논문 게재 및 제반 비용

- 1) 논문 게재는 동일저자의 경우 호당 1편만 게재할 수 있다(단독연구 해당).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 후 1차 교정은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편집부가 담당한다.
- 3)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경우 30만원이며, 분량(17쪽)을 초과하는 경우 인쇄 쪽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 4) 별쇄본은 20부를 제공한다.

#### 6. 게재 윤리규정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공유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해야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한국육아지원학회 연구윤리규정 참조)

### 한국육아지원학회 편집위원회

(2643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윤정 교수 연구실  
편집부 ksecec2@hanmail.net  
간사: 채영숙 010-9722-2064 정안나 010-5065-1852

## 제7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2016. 6~2017.12)

고 문(전임회장)	이기숙(부영사랑으로) 장영희 정미라(가천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문연심(강남대학교) 이윤경(서원대학교)
회 장	심성경(원광대학교)
상임 부회장	성원경(우송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경기·인천권	박희숙(강남대학교)
충청·대전·강원권	박찬수(우송정보대학교)
경상·대구·부산권	한미라(경남대학교)
전라·광주·제주권	진명희(광주대학교)
상임이사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학술이사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정가윤(명지대학교)
연구이사	권이정(공주대학교)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편집이사	김정원(한국성서대학교)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출판이사	이명희(중부대학교) 조인경(대전과학기술대학교)
홍보이사	김난실(명지전문대학)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사업이사	신상인(전 신우유치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서기이사	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이선경(송원대학교)
감 사	조경자(호서대학교) 권용은(안산대학교)
이 사	강경아(우송정보대학) 강수경(가천대학교)
	강숙현(순천제일대학교) 강진주(원광대학교)
	고경미(송원대학교) 광아정(연성대학교)
	곽향림(호원대학교) 김경의(군장대학교)
	김나람(전주비전대학교) 김민정(충청대학교)
	김보영(IBK어린이집) 김소영(서해대학교)
	김수영(대구가톨릭대학교)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김지영(호남대학교) 김진화(순천제일대학교)
	김향자(명지전문대학) 김현자(두원공과대학교)
	김희진(이화여자대학교) 나영이(국제대학교)
	마지순(원광보건대학교) 박순호(대구보건대학교)

이 사

박유미(혜전대학교)  
박정선(명지전문대학)  
백영애(전남과학대학교)  
부성숙(경기대학교)  
손복영(신성대학교)  
손순복(동서울대학교)  
심은희(백석문화대학교)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원계선(제주한라대학교)  
이방실(오산대학교)  
이영미(제주한라대학교)  
이영희(서해대학교)  
이현숙(경북대학교)  
임은미(성결대학교)  
정영희(수원여자대학교)  
정은주(우송정보대학)  
조화연(혜전대학교)  
박정은(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박해미(경민대학교)  
변길희(전북과학대학교)  
성소영(안양대학교)  
손수연(서울여자대학교)  
송화진(전주비전대학교)  
안연경(건양대학교)  
오완숙(전 장충유치원)  
유수경(울산과학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영주(전주비전대학교)  
이지현(건국대학교)  
임부연(부산대학교)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정은경(백석대학교)  
조영례(즐거운 유치원)  
최대훈(서원대학교)  
조윤희(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 사

# 연 수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17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제 :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방향
- 일시 : 2017년 11월 11일(토) 9:30 ~ 16:30
- 장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

2017년 11월 11일

사) 한국육아지원학회장



 Memo

 Memo